“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4호 HYUNBULNEWS.COM 2025년 11월 12일(음력 9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부결…사면 · 복권 통과

조계종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
‘비구니 호계위원’ 단 1표 차 부결
수불 · 선각 스님 등 사면 · 복권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초심호계위원 참여를 명시한 ‘종헌’ 개정안이 1표 차로 아쉽게 부결됐다. 수불 스님(안국선원장)과 선각 스님(전 해인사 주지)을 포함한 10명에 대한 ‘사면·경감·복권 동의의 건’은 만장일치 통과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11월 5일 서울 봉은문화회관 2층에서 재적의원 81명 중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6회 정기회를 개회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회에 앞서 보궐선거로 중앙종회의원에 선출된 일감·보륜·법주·세림 스님은 의원 선서를 통해 공식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개회사에서 종단 운영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건강한 비판을 당부했다. 스님은 “우리 종단은 지난 6월 10일 화재 발생 이래 정상적인 종단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후 5개월의 시간은 본말사와 종도들이 중앙종단의 중요성과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며 “한국사회의 종교지평을 크게 흔들 수 있는 ‘2027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범시민연대와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함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하고 향후 종단 운영 방안을 밝혔다. 스님은 “현재 통합 행정 체계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효율성과 활력이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제37대 집행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해 종단 안정과 발전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명상 확산과 공익적·불교적 수익사업 개발 등의 추진 계획도 밝혔다.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진 ‘종헌 개정의 건’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이 초심호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개정안이 1표 차로 부결됐다.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을 비롯한 59인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비구니 관련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초심호계원을 비구니 호계위원 2인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53표, 반대 22표로 종헌 개정안 가결 정족수 54표에 단 1표가 모자라 종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종단 스님들을 직접 찾아 법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고, 종회 내 충분한 공감대도 형성됐기에 큰 아쉬움을 남겼다.

2018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사면·경감·복권은 대상자 10명에 대한 동의안이 만장일치 가결됐다. 이날 종회 결의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따른 권리 제한을 받고 있던 수불 스님은 복권됐고, ‘직무상 비위’ 등으로 제적됐던 선각 스님은 사면·복권됐다.

또 대안·성국 스님(제적)과 시연 스님(법계강급)은 사면·복권됐고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은 응관·덕중 스님은 복권, 법찬·성견·정화 스님은 경감됐다. 사면·경감·복권 동의안은 종정 스님의 재가 후 시행된다.

한편, 선광 스님 외 26인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은 이월됐다. 개정안은 초심호계위원을 7인에서 2인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사 2면〉



11월 5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제236회 정기회에서 종회의원 스님들이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참여’ 관련 종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구례 화엄사는 11월 5일, 3년여 간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본래 자리로 돌아온 국보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의 복원 기념식을 열고 다시 법의 등불을 밝혔다.

화엄사 천년 법등 다시 불 밝히다

국보 ‘화엄사 각황전 석등’ 복원
11월 5일 경내서 복원 기념식
3년 보존처리 끝에 원위치 봉안

보존처리를 위해 수리에 들어갔던 국보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이 3년 만에 천년 고찰 화엄사로 돌아왔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11월 5일 각황전 앞에서 ‘국보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복원 기념식’을 봉행하고 다시 법의 등불을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주지 우석 스님을 비롯한 화엄사 스님들과 임종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박종서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 김수철 화엄사 신도회장, 이개호 국회의원, 김순호 구례군수, 장길선 구례군의장, 문승옥 부의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석등 복원을 축하했다.

복원된 석등은 지난 2012년, 2015년, 2018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화사석과 상대석의 균열이 심각하다는 판정을 받아 2022년 해체 및 보존처리가 결정됐다. 2023년 5월에는 간주석 위 8개 부재를 해체해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옮긴 뒤 석재의 파손 원인을 분석하고 오염 부위 세척, 균열 부재 접합, 결실 부분 복원 등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했다.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의 보존처리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가 주도했다. 석등은 부분 해체 후 손상된 부재를 3D 스캐닝으로 정밀 분석하고, 미세 균열 내부에는 주입식 마이크로 인젝션 공법을 적용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내부에는 티타늄 보강 핀을 삽입해 진동과 온도 변화에 의한 파손을 최소화했으며, 표면 세척에는 저압 미립자 수세 방식이 사용돼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오염층을 효과적으로 제거했다.

이 같은 3년간의 세밀한 복원 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다시 각황전 앞에 봉안됐다.

주지 우석 스님은 회향사에서 “화엄사 석등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중생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지혜의 등불이자 자비의 마음을 일깨우는 깨달음의 빛”이라며 “오늘 복원된 석등은 단순한 문화유산의 복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법등(法燈)을 다시 밝히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밝은 마음과 자비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길 서원한다”고 덧붙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세계 명상 한자리
“명상 체험 오세요”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대미
‘명상체험부스’ 행사 개최
11월 22~23일 SETEC서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대미를 장식할 체험행사가 열린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11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 정신건강 증진과 명상 대중화를 위해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강남 학여울역 SETEC 제2전시실에서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체험부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상, 하나 되는 길’을 주제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를 지향하는 이번 행사는 24개의 명상체험부스와 9개의 세계명상체험부스로 구성된다.

행사 참가자들은 신체·감각·예술을 매개로 자신을 돌아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법을 경험할 수 있다.

‘몸과 호흡의 명상’ 부문에서는 △바른 자세 △걷기 △호흡 명상 등 신체 감각을 통한 알아차림을 다루며, ‘감각과 예술의 명상’에서는 △싱잉볼 △아로마 △모래만다라 △미술 등 오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유와 표현의 명상’에서는 △글쓰기 △사경 △디지털 명상 등을 통해 내면을 성찰하며, ‘차와 쉼의 명상’에서는 전통차 시음과 마음챙김 식사 명상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매년 큰 호응을 얻어온 세계명상체험관에서는 △하와이 △티베트 △튀르키예 △일본 △영국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등 9개국의 전통 수행법이 소개되며 간화선부터 수피 회전명상, 젠가든 좌선, 위빠사나, 프라나야마까지 세계 각국의 명상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종학연구소는 “올해에는 부스도 증가했고 무엇보다 선명상 트렌드에 맞춰 세계 각국의 명상을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응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동국대 안에서 운영하다가 처음으로 외부에서 행사를 하는 만큼 대중화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실습에도 중점을 뒀다. 전문가, 초심자가 모두 찾아도 될 체험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5 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5 생명살림법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11월 30일(일) 오전 10시 (법문 10시 40분)
◈ : 범어사 선문화관
◈ : 움직임 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
◈ : 선업스님(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 : 02-737-7378
http://www.kbcd.org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관행 벗은 인사안 처리…각종 종법 개정

대종사 · 명사 자동으로 품수
종헌 상충 지적에 공표 관심
타 교구 구성원 자격 제한
복수 추천 인사 투표로 선출
소청심사위원장 승원 스님 등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는 인사안에 대한 격론이 이어져 거수로 투표 방식을 정했고, 복수 추천 건에 한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격을 갖춘 스님이면 대종사·명사 법계를 자동 품수하게 됐다. 다만 해당 종법이 종헌 제28조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제 공포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타 교구 재적승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종법도 개정됐다.

11월 5일 서울 봉은문화회관 2층에서 열린 조계종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는 종법 개정안과 인사안이 다뤄졌다.

종회는 종법 개정을 통해 승납 40년 이상으로 종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승려에게 대종사·명사 법계를 자동으로 품수하도록 했다. 다만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승려의 경우 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심우 스님은 "현재 대종사·명사 법계 품서 수지 요건이 충족된 스님이 3300명 이상으로, 매년 대상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자격을 갖춘 스님에게 대종사·명사 법계를 자동으로 품수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종정 스님과 전계대화상, 총림 방장 스님에 대해선 새로운 법계를 고민해 다음 회기에 법안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계에 맞는 위의를 갖춰야 한다는 법계위원 스님들의 뜻을 존중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종회는 3독회 끝에 만장일치로 '법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속개한 본회의에서 '종헌' 제28조가 원로회의 권한으로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을 명시하고 있어, 종법 개정이 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우 스님은 "'법계법' 개정으로 대종사·명사 법계가 자동 품수될 경우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승려만 법계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이라며 "법률 자문 결과 종헌이 명시한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은 유효하며, 개정된 '법계법' 역시 효력이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대진 스님은 "종헌에서 명시한 법계 심의권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종법 개정으로 종헌과 종법의 조문이 상충하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봉 스님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하위법은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총무원 집행부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회는 '법계법' 개정에 따라 '원로회의법' 제5조 6항의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원로회의법' 개정안도 만장일치 통과했다. 심우 스님은 원로회의법과 관련해서도 "종헌이 큰 기둥이고, 종법은 실행사항을 담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공포권자가 심사해 공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타 교구 재적승으로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신규 임명된 스님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산중총회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법원 스님은 "현행 산중총회법은 타 교구 재적승이라 하더라도 해당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산중총회에 당연직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산중총회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 자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수 의원 스님들은 "일부 교구에서 악용 사례가 많다"며 개정 취지에 공감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결제기간 중 한 차례는 구족계 포살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계및포살에 관한법' 개정안도 만장일치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효명 스님은 "조계종 승가는 율장을 근거로 구족계를 수계함에도 포살은 범망경보살계본으로 행하는 것은 수계만 있고 참회 시스템은 부재한 모습"이라며 "결제기간 2회 중 1회는 보살계 포살, 1회는 비구계·비구니계·사미계·사미니계 포살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정·오심 스님 등은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인데 범망경을 부정하는 듯 보이고, 각 교구본사에서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각 교구본사의 사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선택 규정으로 자구를 변경해 가결했다.

이어 종회는 환풍 스님의 임기 만료에 따른 소청심사위원장에 승원 스님을 만장일치 선출하는 등 각종 인사안도 처리했다. 특히 결원보다 많은 스님이 추천된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은 열띤 논의가 오갔다.

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인사 선출 시 결원이 생기면 그 후임을 정해 보충을 해왔다. 이는 시비분쟁을 줄이기 위한 중앙종회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진 스님은 "관례가 종법 우위에 있지 않다"며 "결원보다 많은 인원이 추천됐다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제정 스님도 "이의 제기가 있으니 투표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진화 스님은 "관례를 깨고 새로운 원칙을 정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종회는 휴회하고 종책모임 간 의견을 공유했지만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속개 후 다시 투표 방식에 대한 격론이 오갔고, 43명의 찬성으로 복수 추천 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진성·선문 스님의 사직과 도호 스님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법규위원에는 정오·지우·도완 스님이 선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에는 선우 스님과 진산 스님 임기만료로 추천된 무일 스님과 선문 스님이 단독후보로 각각 선출됐다. 혜민 스님 후임에는 무기명 투표에서 68표 중 41표를 얻은 태설 스님이, 현담 스님 후임에는 46표를 얻은 진산 스님이 선출됐다.

소청심사위원에는 4명의 스님이 추천됐지만, 성로 스님이 인오 스님 추천을 철회하면서 지도·무안·덕산 스님이 최종 선출됐다. 덕암·무안·도일 스님의 임기 만료에 따른 선출이다.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해량·명진 스님의 임기 만료로 명진·석중·해량 스님이 추천됐다. 명진 스님 후임에 추천된 명진 스님은 단독으로 선출됐고, 해량 스님 후임으로 추천된 석중·해량 스님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결과 37표를 얻은 해량 스님이 선출됐다.

또 중앙종회는 법만 스님에 대한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을 가결했다. 법계위원은 법계법 제5조에 의해 총무원장이 중앙종회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다.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에는 도림 스님 후임으로 재안 스님과 성원 스님이 추천됐다.

인사심의특별위원,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 종단미래대비를위한특별위원, 총림실사특별위원 등의 선출은 논의 끝에 의장단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불기2569(2025)년도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하고 7일 오전 속개하기로 했다. 〈차주상보〉

진우 스님 "불교예산 '선심성' 인식 전환을"

한병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유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선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교유산 보존·계승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11월 3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진우 스님은 "최근 한류(K-컬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 뿌리는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이어져 온 전통문화에 있다. 그 가운데 불교유산은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으로, 국가지정 문화유산 가운데 불교유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전체 지방문화유산까지 포함하면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스님들이 앞장서 신앙적 차원에서 불교유산을 보존해 왔고, 신심과 원력으로 계승하고 있다"면서 "고궁 등에는 인력과 예산이 전폭적으로 지원되지만, 사찰 문화유산에는 여전히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진우 스님은 그러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은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나서야 할 일이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내영 기자

전국비구니회, 로터스관 불사 동참

동국대에 기금 3000만원 전달



불교종립 동국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건립불사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 이하 전국비구니회)가 힘을 보탰다.

동국대는 11월 4일 본관 4층 이사장실에서 '전국비구니회 로터스관 건립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부회장 서광 스님,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지정학 동국대 법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장 광용 스님 등 전국비구니회 회장단은 동국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터스관의 건립기금 3000만원을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다.

광용 스님은 "종립대학 동국대의 성장과 위상은 모든 종립학교의 모범"이라며 "동국발전을 위한 로터스관 건립불사에 전국비구니회는 물론 전국의 불자들이 동참해 원만 회향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동화사 주지후보에 5명 입후보

11일 자격심사–14일 산중총회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후보에 홍관·법광·선광·혜범·현장 스님이 등록했다. 동화사 교구선관위에 따르면 11월 4일 주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군위 팔공산 석굴암 주지 홍관 스님, 전 능인학원 이사장 법광 스님, 중앙종회의원 선광 스님, 칠곡 송림사 주지 혜범 스님, 전 대구 보현사 주지 현장 스님이 입후보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11월 11일 회의를 열어 후보자 자격심사 및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한다.

동화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11월 14일 오후 1시 경내 설법전에서 열린다. 김내영 기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남녀 단기출가학교

쉼, 그리고 시작

수행기간
2025.11.21금 ~ 30일
9박 10일

대 상 출가(체험)희망자, 불교에 관심 있는 성인 남녀
심신이 건강하고, 대중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

모집내용
• 모집기간 : 2025년 10월 6일(월) ~ 2025년 11월 20일(목)
• 수행기간 : 2025년 11월 21일(금) ~ 2025년 11월 30일(일) 9박 10일간
• 모집인원 : 12명 내외
• 접수방법 : 선운사 홈페이지 접수 http://www.seonunsa.org/
• 문 의 : 063-561-1422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 운 사

“을축년 대홍수 100년, 청호 선사 정신 잇자”

11월 1일, 봉은사 미륵광장서 추모
희생자 극락왕생 · 국태민안 발원
708명 구한 청호 선사 자비정신
“자비와 연대 이어지는 계기 되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사단법인 국가무형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재 보존회는 11월 1일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을축년 대홍수 추모문화제’를 열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했다.

서울 봉은사에서 을축년 대홍수 발생 10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민 708명을 구해낸 청호 선사의 자비 정신을 기리는 법석이 펼쳐졌다.

사단법인 국가무형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재 보존회(이사장 원명 스님, 봉은사 주지)는 11월 1일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을축년 대홍수 추모문화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원명 스님과 선원장 관도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조계종 포교국장 도진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20세기 한반도 최악의 홍수’로 불리는 을축년 대홍수는 1925년 여름 한반도를 강타해 막대한 사상자와 피해를 냈다. 당시 봉은사 주지였던 청호 선사(1875~1934)는 사중 재산을 투입하고 직접 구조대를 이끌어 고립된 708명의 구하는 등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펼쳤다. 청호 선사의 보살행이 알려지자 1927년 스님의 공덕을 기리는 시와 그림을 엮은 〈불괴비첩〉이 출간됐고, 1929년에는 봉은사 경내에 ‘나청호대선사 수해구제 공덕비’가 세워졌다.

추모제 1부는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개식과 신중작법, 상단불공, 영단시식이 진행돼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2부 기념식에서 원명 스님은 “을축년 대홍수 당시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모았던 청호 선사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어려움을 절대 외면하지 말라’는 무언의 가르침을 준다”며 “나와 이웃, 나아가 국민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3부에서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국태민안을 기원한 봉은사연합합창단과 국악합주단의 추모가, 어쏘티드의 추모 뮤지컬, 봉은사무용단의 진혼무, 국악인 오정해 씨와 가수 정태춘 씨의 공연이 선보였다.

이날 봉은사 경내에는 을축년 대홍수의 참상을 전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진 전시와 발원문 달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펼쳐졌다.

“우리는 주인공!”…500 동국인 불자 거듭

동국대, 11월 5일 수계법회 봉행
돈관 스님 “참된 불자되길” 당부

500여 동국대 학생들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며 불자로 거듭났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11월 5일 본관 남산홀에서 ‘2025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지난 9월 16일 열린 ‘영캠프’ 참가 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을 위한 후속조치다. 올해 ‘영캠프’는 참가 신청 시작 2분 만에 매진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고, 500석 규모의 추가 신청도 접수 개시와 동시에 마감됐다. 이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의 수계법회 요구가 이어졌고, 학교 측은 이를 적극 수용해 수계법회를 봉행하게 됐다. 학생들의 열기를 반영하듯 본관 남산홀은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전계대화상으로 법상에 오른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스스로 수계를 발원해 법회를 열게 한 학생들에게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오계를 설했다.

돈관 스님은 “여러 인연을 거쳐 남산홀에 모여 수계를 받는 이 자리는 동국의 자긍심을 갖고 참된 불자로서 살아가겠다고 부처님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법석”이라며 “오늘의 약속들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뗏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입으로 몸으로 뜻으로 지었던 죄업들을 참회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삶의 바른 지혜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계를 수지한 학생들은 연비의식을 통해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으며, 연비사 스님들은 500여 학생들에게 연비 대신 염주를 전달하며 학생들이 참된 불자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동참 수계자 전원에게는 동국대 통합모바일앱을 통해 ‘모바일 수계증’이 전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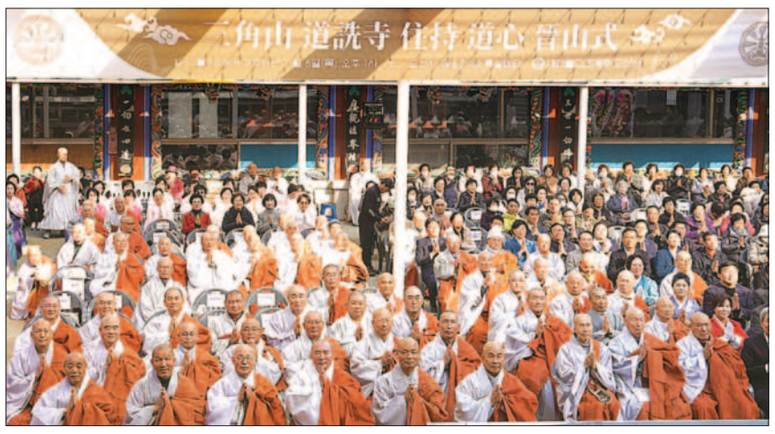
전호빈 중앙불교동아리 회장(불교학부 2학년)은 “진정한 불자로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느낌”이라며 이어 “학교 통합모바일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수계증도 법명과 그 의미를 항시 되새길 수 있어 불자로서 마음가짐을 다잡는데 매우 용이하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는 11월 5일 본관 남산홀에서 ‘2025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을 비롯한 법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선사 주지 도심 스님 “중생 이익과 안락 위해 정진”

11월 6일, 경내서 진산식 봉행
진우 스님 등 1000여 명 참석
강북구에 백미 2000kg 전달도



11월 6일 봉행된 도선사 주지 도심 스님 진산식에는 1000여 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오직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나아가라는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 정진하겠습니다.”(도심 스님 취임사 中)

서울 삼각산 도선사가 11월 6일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가운데 주지 도심 스님의 진산식을 성대히 봉행했다. 진산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지도자 스님과 정계 인사들이 대거 동참해 취임을 축하했다.

도심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역사와 종단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수행자의 본분과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우리 종단의 법통과 뭇생명을 외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살림을 살아가겠다”며 “도선사 사부대중과 함께 올리는 기도가 온 생명을 감싸고 종단을 외호하는 희망의 기도가 되길 바란다”고 염원했다.

끝으로 도심 스님은 “선명상을 실천하며 정진하는 들숨과 날숨은 부처님의 자비로 화하여 세상에 퍼질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한 현장에서 도선사 대중이 함께하는 실천의 모범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도심 스님은 이날 백미 2000kg을 이순희 강북구청장에게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해 의미를 더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도선 국사가 이곳에 불법의 기틀을 세우고, 그 법맥 위에 청담 스님이 이 도량을 부흥의 근본도량으로 일으켰으니, 그 원력이 곧 오늘의 도선사를 있게 한 큰 인연”이라며 “이제 도심 스님이 그 위대한 원력의 등불을 이어받아 도선사 중흥과 서울 강북 지역의 신행 중심으로서 깨달음과 자비, 나아가 사회적 실천 도량을 펼쳐 가리라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위령재

11월 18일 오후 2시 조계사서
‘안전하고 차별없는 사회’ 기원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1월 18일 오후 2시 조계사 마당에서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를 개최한다. 이번 추모위령재는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산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추모 위령재는 추모타종 및 영상, 추모사, 천도의식, 천도법문, 발원문, 유가족 인사, 위패 소전의 식으로 진행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천도법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숨진 영가와 유가족을 위한 법문과 함께 생명존중과 산재 없는 사회 공동체를 염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모 위령재 의식은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진행한다. 청혼·관욕, 상단불공, 천도법문, 화청염불, 영단시식으로 이어진다. 위령재에는 산재사망 유가족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며 국무총리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여해 함께 마음을 모을 예정이다. 참석자는 약 400명이다.

임은호 기자

Heungkuk 흥국생명

제례의식의 수행 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보험금 수령)로 지정**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49재 하늘소풍 제례 종신보험**

누구나 좋은보험!

“죽고 나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더 이상 자녀와 후손에게 부담은 그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인 제사 고민 끝!

이제 사찰에서 여법하게 모십니다.

다양한 보장금액으로
나의 재정 상황에 알맞게
든든한 미래 준비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 전액 보장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 부지급

선택사항
49재(천도재)와 기제사(1년~5년)를 기본으로 구성
범패, 바라, 위패봉안, 큰스님 영가법문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다비식까지 다양한 옵션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사후(死後)

유가족
제사 부담 해소, 고인에 대한 예우

사찰
안정적인 제사 확대

상담문의전화
선우HK 보험대리점 1522-1543
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8022호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본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체결전약관및상품설명서를반드시읽어보시기바라며보험계약청약서에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등을반드시확인하시고보험상품내용을설명받으시기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기존에체결했던보험계약을해지하고다른보험계약을체결하면보험인수가거절되거나보험료가인상될수있으며보장내용이달라질수있습니다.※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회사는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고의로인한사고및일반사망보험금의경우2년이내자살할경우보험금지급이제한됩니다.※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15일이내에청약을철회할수있으며,이경우철회를접수한날부터3영업일이내에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단,회사가건강상태진단을지원하는계약,보험기간이90일이내인계약또는전문금융소비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철회를할수없습니다.위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30일(65세이상을보험계약자로하는통신판매보험계약의경우에는45일로합니다)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청약철회기간내에청약철회를하실경우납입한보험료전액을돌려받으실수있습니다.※계약자가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철회때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듣지못하였을경우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납입한보험료와정해진이자를더하여돌려드립니다.※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계약을청약할때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에관하여고지하고,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는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하셔야합니다.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는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사와관계없이보장을제한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계약해지시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가아닌해약환급금이지급됩니다.※이보장개시일은예정보험료납입에따라해약환급금또는감가시보험료에기초하여지급금을합한금액이납입한보험료보다적어지는시점이며,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장개시일이다를수있습니다.※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는불의의사고를당한다른가입자에게보험금으로지급되고보험회사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되므로중도해지시지급되는해약환급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피보험자의위험직업종류또는운전차량종류및용도에따라가입이거절되거나제한될수있습니다.※계약자께서는본상품에대한내용과본상품에서제시된보장내용,보험기간등을변경하여보험설계를하는경우에는아래에서당사의상품과유사한다른회사의상품을비교하실수있습니다.※보험에관한불만사항이있는경우에는콜센터1588-2288로문의하여주시면신속히확인해드리겠습니다.※흥국생명보험: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68흥국생명빌딩소비자보호팀※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s://fss.or.kr):국번없이1332※보험상품비교공시:www.klia.or.kr(생명보험협회)※보험상품및가격공시실: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승인번호:생명보험협회심의필제2025-06402호(2025-09-23~2026-09-22)

5천여 한마음선원 불자 정진 다짐

11월 2일, 37차 수계법회 봉행
223명 수계하고 불제자 거듭
4600여 명 연비받고 '재발심'
가족 참가자 '세대전승' 모범


한마음선원은 11월 2일 안양본원에서 '제37차 신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이사장 혜수 스님이 어린이 신도에게 연비의식을 하는 모습.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신도들이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진정한 불제자로 나아가겠다고 굳게 서원했다. 계를 받아 지닌 신도 대중은 이날 불제자로서 첫걸음을 당당하게 내디뎠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11월 2일 안양본원에서 '제37차 신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대행 선사를 증사로, 이사장 혜수 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223명이 수계하고 불제자로 거듭났으며 4600여 명이 연비를 받고 불자로서 발심을 되새겼다.

대행 선사는 영상법문을 통해 수계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실천을 설했다. 대행 선사는 "오계를 받았다는 계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계를 받아 지녔더라도 남의 탓을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한다면 안 될 일"이라며 "가족과 이웃에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안으로 모든 것을 맡겨놓고 놓는 사람, 망상이 있더라도 망상에 걸리지 않고 거기 놓고 가는 사람"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한가닥 바람결 같이 왔다가 바람결 같이 흩어져서 다시 모이면 다시 흩어지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며 "그러니 몸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곳도 없다는 그 사실을 바로 터득하라"고 대중에 당부했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는 '오계를 받아 지니는 것이 일체제불과 다 통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오계를 받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이 생에 최상승의 길을 걷는 것이고 차원이 아주 높아지는 행위"라고 오계 수지와 실천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처음 계를 받은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연비를 받으신 분들은 오계 수지와 실천을 발심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날 수계자들은 바른 계행으로 진정한 대장부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수계 동참자들은 능오 유창열 씨(41, LA지원 신도)가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생활 속 계율을 따르며 감사할 줄 알고 자비의 등불을 밝혀 방황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길을 인도해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겠다"면서 "수계자들은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면서 문 없는 문으로 길 없는 길을 따라 대장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발원했다.

안양본원과 국내외 지원에서 50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등 가족 단위 동참자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이는 '불교 세대 전승'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어머니 박성령(45, 부산지원) 씨와 수계법회에 동참한 김은재(8, 부산지원) 군과 김아림(7, 부산지원) 양은 "오계를 받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부처님과 약속했다"고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창건 35주년을 맞는 LA지원의 신도 40여 명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수계법회를 시작으로 전국 지원 성지순례를 진행해 11월 9일 회향할 예정이다. 신도를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한 LA지원 신도 유창열 씨는 부모님과 수계법회에 동참했다. 유 씨는 "수계법회로 발심해 대자유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아버지 유홍준(79, LA지원) 씨는 "아르헨티나 지원에서 대행 선사의 법을 만나 배우고 LA로 공부의 거처를 옮겨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이가 있으니 아마도 마지막 동참이 아닐까 싶다. 온 가족이 함께 계를 받아 감회가 새롭고 기쁘다"고 말했다.

어머니 송윤순(76, LA지원) 씨도 "연비를 몇 번 받았지만 오늘 같이 감격스럽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하지 못했다. 대행 선사의 법이 더 진하게 맺어지는 것 같았다"고 감동을 전했다.

LA지원 순례단에 동참한 한행(80, LA지원) 씨는 "본원에서 부처님과 대행 선사를 뵙고 계를 받을 수 있어 환희롭다"면서 "부처님 법대로, 대행 선사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불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준한 스님, 뉴욕 조계사 주지 임명…'힙불교' 미국으로

10월 31일, 총회서 만장일치로 결정
준한 스님 "숭산 스님이 주신 선물"
JustBe글로벌 프로젝트 중심 기대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힙한' 불교 열풍을 이끌고 있는 JustBe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사진〉이 숭산 스님의 외국인 포교 원력이 깃든 미국 뉴욕 조계사의 새로운 주지로 임명됐다. 홍대선원에 이어 'JustBe 히말라야'에서 글로벌 수행도량을 일구고 있는 준한 스님의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발걸음이 세계의 심장부로 불리는 뉴욕까지 닿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뉴욕 조계사는 10월 31일 경내에서 열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준한 스님을 새 주지로 임명했다.

뉴욕 조계사는 숭산 스님이 1978년 뉴욕 퀸즈의 한 가정집에 법당을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숭산 스님의 원력을 받든 묘지 스님은 2003년 뉴욕 맨해튼 한복판으로 사찰을 옮겨 왔다. 법회뿐 아니라 참선, 다선(茶禪) 명상, 선요가 명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20년 전, 전 주지 묘지 스님을 통해 뉴욕 조계사와 인연을 맺은 준한 스님은 이후 한국에서 숭산 스님 법맥 아래 출가수행을 시작했다. 준한 스님이 처음 출가를 서원한 곳이라 이번 주지 임명은 의미가 크다.

준한 스님은 "뉴욕 조계사는 20년 전, 출가 직전 마지막 기도처"라고 의미를 전하며 "숭산 큰스님의 원력으로 세워진 맨해튼 유일 한국 사찰 뉴욕 조계사의 이사장 겸 주지 소임을 맡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어 "JustBe히말라야 도량 창건을 앞두고 큰스님께서 주신 미션이자 선물 같은 느낌"이라고 감회를 전하며 "앞으로 JustBe글로벌 프로젝트의 중심이 될 곳"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연화사의 따듯한 점심식사, 친구한테 자랑할래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청년밥心'
11월 4일 연화사서 80명 공양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지난해부터 대학가 인근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밥심'이 입소문이 나면서 매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11월 4일 연화사 공양간에서 학생들이 점심공양을 하는 모습.

"오늘 절에서 점심 먹은 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려고요. 사찰음식 맛도 기억도 하고 친구들한테도 자랑할래요."

11월 4일 점심시간, 서울 연화사 공양간에서 만난 이지율(경희대 사회학과 4) 학생. 배식판을 식탁에 놓자마자 수저보다 휴대전화를 먼저 꺼낸 지율 학생이 연신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만족스러운 사진을 건진 후에야 식사를 시작한 지율 학생은 놀라운 얼굴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은 친구에게 말한다. "이 버섯탕수육이랑 양배추 정말 맛있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이 청년들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학가 인근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밥심'이 입소문이 나면서 매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연화사에도 이날 사전 예약자 60명을 훌쩍 넘은 80여 명의 학생들이 공양간을 찾았다.

'청년밥심'은 학자금 대출,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한 끼 공양을 제공하고, 사찰 공간에서 쉼과 대화를 나누며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연화사 점심공양에도 맑은 순두부, 청포묵오이무침, 과일세발나물 유자샐러드, 버섯탕수육, 모듬쌈 등이 제공됐다. 연화사 신도회의 봉사와 불자들의 후원이 만들어 낸 정갈하고 따뜻한 사찰음식이다.

음식을 맛본 학생들은 "엄마가 해준 건강한 집밥 느낌"이라며 "공짜로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불교가 더욱 친숙하게 느껴진다고도 했다. 김동현(경희대 경제학과 4) 학생은 "영양 가득한 식사를 제공하면서도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면서 "무교인데 불교를 종교로 해야 할까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날 청년밥심 배식에 함께 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연화사를 '동대문구의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청년밥심'은 청년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앞으로 '청년밥심'에 동참하는 사찰을 전국적으로 발굴,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과 불교문화 경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교법사 창설 80돌 "지혜·자비 교육현장"

10월 31일, 동국대 정각원서 기념
불교교육연합회 총회 및 발표회도



교법사들이 올해 창설 80주년을 맞아 교육을 통한 청소년·청년 전법을 발원했다. 교법사단(단장 양동효)은 10월 31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에서 '교법사 창설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6개 학교, 11개 법인에서 30여 명의 교법사들이 참석했다.〈사진〉

양동효 교법사단장(의정부 광동고)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진로에 대한 고민,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 정서적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불교는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쉼표를 제공해 주고 성장의 등불을 밝혀 주어야 한다"며 "우리 교법사들이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포교국장 도진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교법사들의 공로와 헌신은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 사회와 한국불교의 미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청소년들과 세상에 전하는 등불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교법사들은 김가연 광동고 교법사가 대표 낭독한 발원문에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의 등불을 놓지 않고 청소년들의 마음에 맞는 언어와 방식으로 접하며 자비와 지혜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교육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문화관 초허당세미나실에서 불교교육연합회(회장 윤재웅, 동국대 총장) 임시총회 및 교학연구발표회가 열렸다. 신중일 기자

난방키트로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동행 '난방키트 지원 캠페인'
10만원 상당 필수품 구성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추위와 싸워야만 하는 이웃들에게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난방키트로 따뜻한 희망을 전한다.

아름다운동행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난방키트 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온풍기, 겨울이불, 전기매트 등 10만원 상당의 겨울철 필수품으로 구성될 난방키트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후원은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http://dreaminus.org)를 통해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후원액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모금 전액은 난방키트 제작 전달에 사용된다. 02-737-9595

후원계좌:국민은행 023537-04-004302(예금주:아름다운동행) 임은호 기자

'나는 절로' 결혼 1호 커플 탄생

백양사서 맺어진 인연 결실
결혼 앞두고 무공 스님에 인사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배출한 결혼 1호 커플이 첫 만남을 가진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를 찾아 주지 스님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 복지재단에 100만원을 후원하며 '나는 절로'의 발전을 염원하기도 했다.〈사진〉

지난해 11월 백양사에서 열린 '나는 절로'에서 인연을 맺은 손길동(참가명)·임길순(참가명) 커플이 11월 23일 결혼식을 앞두고 11월 1일 백양사를 찾았다.

무공 스님은 "평생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는 방법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서로 간의 마음을 살펴 주는 것"이라면서 "아이 많이 낳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1호 커플에게 금일봉과 함께 백양사에서 자란 보리수로 만든 염주를 선물했다.

손길동·임길순 커플은 "복지재단과 백양사의 큰 배려로 결혼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복지재단에 '불교사회복지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빛나는 '2025 슈퍼스타 종로' 성료

선명상 그룹 '비텐스' 공연
복지기여자 표창 진행도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스님)이 경로의 달을 맞아 10월 30일 진행한 '2025 슈퍼스타 종로'가 마무리됐다.〈사진〉 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순간, 빛나는 종로'를 주제로 마련됐다.

조계종 선명상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복지기여자 표창 수여식으로 이어졌다.

2부 세대공감 공연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구성됐다. 아동·청소년팀, 청년팀, 중장년팀, 세대통합팀 등이 세대 간 공감과 화합의 무대를 선보였다. 3부 특별공연으로 트로트 가수 김소유의 무대가 더해져 현장의 열기가 뜨거워졌다. 송정인 수습기자

한국 불교문화 세계 알린 APEC 정상회의

APEC 2025 KOREA

불국사서 김혜경 여사 주최 배우자 행사
종정 성파 대종사 찻잔 작품으로 차시음
진우 스님, 선명상 '자비·평화' 가르침
CEO 서밋 만찬에 선재 스님 사찰음식
간화선 체험…법회·전시로 성공 기원

여수령·김내영 기자



10월 31일 불국사에서 김혜경 여사 주최로 열린 APEC 정상회의 참석 경제체 배우자 행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통한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을 전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찻잔 작품으로 차를 마시는 모습. 사진 제공=조계종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불교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 문화외교의 장이었다. 특히 불교계는 법회로 APEC 성공 개최를 기원한 데 이어, 불국사에서 공식 외교 행사가 열리고 특별 만찬에는 사찰음식이 선보이는 등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문화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가장 주목받은 행사는 10월 31일 불국사에서 김혜경 여사 주최로 열린 APEC 정상회의 참석 경제체 배우자 행사다. '시간을 잇는 다리, 문화를 잇는 마음'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와 캐나다 다이애나 폭스 카니 여사, 뉴질랜드 아만다 럭슨 여사, 필리핀 루이즈 아라네타 마르코스 여사, 싱가포르 루즈루이 여사, 대만 린원쉬엔 영애, 태국 타나논 니라밋 여사가 참석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함께해 참석자들에게 한국불교와 불교문화를 소개했다.

진우 스님은 "불국사는 창건 이래 1300여 년 동안 토함산 너머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동해의 물결에 평화와 번영을 기원해 온 기도도량"이라며 "불국사의 솔향기와 바람소리는 인간과 자연, 나라와 나라가 서로 어우러지는 조화와 상생의 울림이 될 것"이라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하는 인연의 그물망 속에 있다"며 "그 인연법의 가치를 함께 나눌 때 이 지역은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워진다"고 말했다.

존재의 관계성과 하나됨을 자각하게 하는 '선명상' 수행도 소개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통해 우리는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 내면에서 자연스레 자비심이 피어난다"며 "그 자비의 마음이 널리 확산될 때 이웃과 나라, 나아가 세계는 평화로움 속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스님은 "불국사를 찾은 인연이 각자의 내면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여는 뜻깊은 출발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스님들의 문화유산 해설을 경청하며 불국사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감상하는 동시에, 한국인의 정신과 정성을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무설전에서 진행된 한식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콩을 주재료로 한 다식 만들기가 진행됐다.

행사는 진관사 스님들이 직접 진행했다. 다식 지도를 맡은 계호 스님은 "콩다식은 삶은 콩을 곱게 찧어 꿀과 섞어 만든 전통 다식으로, 예로부터 궁중의 진연에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올리던 음식"이라며 "콩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을 지켜 주는 자연의 선물이며, 소박함 속에 충만함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직접 다식을 만들며 "천년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다도 체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녹차를 시음하며 깊은 맛과 향을 느꼈다. 특히 찻잔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직접 빚은 작품으로 의미를 더했다.

김 여사는 "천년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여사와 참가자들은 복주머니를 든 채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를 배경으로 공식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실은 배우자 행사 장소로 불국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불국사는 과거와 현재, 현실과 이상을 잇는 가교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장소로서, 당시 우리 선조들이 추구해 온 이상세계인 불국(佛國)을 현실에 구현하고자 한 철학이 깃든 곳"이라며 "그런 곳을 APEC 회원 경제체 배우자들이 찾은 것은 각기 다른 문화와 가치를 하나의 조화로운 세계로 연결하는 상징적 여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0월 30일 경주 황룡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특별만찬에서는 사찰음식이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만찬은 경상북도가 주최한 공식 환영 행사로, 세계적 기업 CEO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과 식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네츄르먼트가 기획·연출한 특별만찬에서는 제철 식재료와 전통 발효식품으로 만든 3가지 코스 요리와 발우 한상차림, 후식 등이 선보였다.

특히 한상차림은 발우를 모티브로 제작된 그릇에 담긴 연자밥과 배추무된장국, 홍시배추김치, 연근선, 김부각 등으로 구성돼 호평을 받았다. 후식으로는 다식과 주악, 송편, 송차 등이 제공됐다.

선재 스님은 '비움의 미학과 공존의 철학'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음식의 본질적 가치와 자연에 대한 존중을 담은 사찰음식의 의미를 설명하고 "공양은 온 우주의 생명을 맑고 건강하게 해 주는 식사법"이라고 소개했다.

홍성미 네츄르먼트 대표는 "사찰음식은 한국의 정신문화와 지속가능한 생태철학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만찬을 통해 한국 식문화의 철학적 깊이와 문화적 다양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의 수행법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류완하)는 10월 28일 교내 선센터에서 APEC 참가국 CEO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화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불교 수행의 정수인 간화선을 통해 '마음의 평화'에서 '세계의 평화'로 나아가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11개국 100여 명이 참여했다.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이 지도법사를 맡아 실참과 질의응답을 이끌었다. 또 다도와 발우공양 체험도 이뤄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수불 스님은 "한 번의 체험이 완전한 깨달음을 주지는 않더라도,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는 법석과 문화행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제13·14대 종정을 역임한 진제 법원 대종사는 10월 25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인류 평화를 발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했다.

또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 범어사 주지)는 10월 26일 범어사에서 '2025 팔관회 호국기원법회'를 봉행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불국사박물관(관장 종천 스님)은 12월 7일까지 특별전 '솥의 기억, 감춰진 염원'을 열고 고려 불교공예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린다. 경주ICS(회장 황경환)도 11월 1일까지 경주IC휴게소 갤러리에서 '경주 APEC 성공 기원 선서화전'을 열고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작품을 비롯한 100여 점을 선보였다.

이처럼 이번 APEC 정상회의는 한국불교가 평화와 상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문화외교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불국사 대웅전 앞에서 기념촬영. 사진 제공=조계종



진관사 스님들의 다식 체험 지도. 사진 제공=조계종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특강. 사진 제공=네츄르먼트



CEO 서밋 만찬의 발우 한상차림. 사진 제공=네츄르먼트



10월 28일 동국대에서 열린 간화선 체험프로그램.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범어사 동의가 '분기점'

10월 31일, 국립공원위 심의 통과
24번째이자 첫 도심형 국립공원
범어사, 상생발전 MOU 체결
정오 스님 "300만 시민과 축하"
10월 30일, 개산대재로 '법등 밝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범어사가 자리한 금정산이 우리나라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범어사 전경.

부산 금정산이 10월 31일 24번째 국립공원이자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가운데, 수년에 걸친 금정총림 범어사의 협력이 분기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20년 숙원이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300만 부산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립공원위원회는 10월 31일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결정안'을 의결했다. 37년 만의 신규 지정인 데다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난해 범어사가 국립공원 지정에 '공식 동의' 입장을 확정하며 이해 당사자 협의를 제도화한 점은 지정 추진에 분기점이 됐다는 평가다.

금정산은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그중에서도 범어사와 금정산성은 금정산의 정체성과 상징하는 핵심 자원으로 손꼽힌다. 이번 지정을 통해 금정산은 일상의 산을 넘어, 국가가 인정한 보전 가치 공간으로 위상이 분명해졌다.

부산시는 수년 전부터 지정 타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유지와 사찰 토지 문제, 수행 환경 보전, 탐방로 관리 등이 민감한 과제로 다뤄졌다.

하지만 범어사는 대승적 결단으로 지난해 11월 26일 부산시·금정구 등과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립공원 지정 동의를 공식화했다. 협약에는 산불 예방, 탐방로 정비, 수행 환경 보전 등 공동 관리 원칙이 포함됐다. 이 협약을 통해 범어사는 지정 과정에서 '협의 대상'을 넘어 '지정 이후 운영 국면까지 함께 책임지는 협력 당사자'로 참여 지위를 명확히 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10월 30일 개산 1347주년 기념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문화와 역사 자원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평가 항목 중 하나다. 범어사의 문화유산과 역사성은 금정산이 단순 자연자원이 아니라 '도심형 역사자원 복합 산지'라는 성격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지 정오 스님은 11월 4일 "20년 숙원이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300만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지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범어사는 앞으로도 시민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취지에 부합하는 보전과 운영에 책임 있게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범어사는 10월 3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개산 1347주년 기념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법석에는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와 수좌 수불 대종사, 주지 정오 스님, 강주 용학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을 비롯해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성희엽 부산미래혁신부시장, 이대석 부산시의회 부의장, 김석준 부산교육감, 윤일현 금정구청장, 하정선 불교TV염불공양회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정여 스님은 법어에서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보이는 세계도 청정하고,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면 세상도 어둡고 혼탁하게 보인다"고 설했다. 또 "의상 대사께서 산문을 여신 것은 모든 중생의 고통과 번뇌를 맑고 청정한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어 주기 위함"이라며 "화엄의 가르침은 혼탁한 마음을 가을 하늘처럼 맑고 따뜻하게 해 가정과 사회, 국가가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오 스님은 봉행사에서 "1300여 년 동안 범어사는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불법의 등불을 밝혀 왔고, 수많은 중생의 마음에 의지처가 돼 그 가람은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말했다.

제15회 반야학술대상에 조병활 원장

11월 2일, 통도사 반야암서 시상식
〈조론〉 주석서 5종 번역 성과 주목



제15회 반야학술대상이 '조론'과 '바세' 연구에서 학술적 기여도를 인정받은 조병활 불전연구원장에게 주어졌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은 11월 2일 제15회 반야학술대상 시상식을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개최했다.〈사진〉

연구원장 지안 스님은 "반야학술대상은 연구 업적만을 표창하는 행사가 아니라, 불교가 지닌 지혜를 오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게 할 것인가를 묻는 학문적 실천의 장"이라며 "이번 시상식이 한국 불교학계가 동아시아 비교 연구의 흐름을 더 넓게 전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태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은 올해부터 명칭을 '반야학술대상'으로 변경한 배경을 설명하며, 시상이 학문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활 박사는 "과분한 평가를 앞으로 더 연구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며 "중국불교와 티베트불교란 전공 분야가 한국불교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도록 연구 성과를 더욱 축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옥천암, 12차 산신대재 및 경로잔치

11월 1일, 지역사회 평안 기원
이웃돕기 라면 300박스 전달



부산 옥천암(주지 대각 스님)은 11월 1일 '제12차 황령산 옥천암 산신대재 및 경로잔치'를 봉행했다.〈사진〉

도량의 안녕과 지역사회의 평화를 기원하고 어르신 공경과 이웃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이날 법회에는 대한불교화엄승가회 수석부회장 천웅 스님, 총무부장 성담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대각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상 속에서 실천되고 지역과 함께하는 포교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옥천암 신도회는 라면 300박스를 문현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도일 스님, 5명에 법맥 전등

11월 2일, 전계 및 전강 법회 봉행
승조 · 지성 · 담산 · 용희 · 일몽 스님


전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이 11월 2일 부산 관음사에서 제자 5명에게 강맥과 율맥을 전했다.

전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이 부산 관음사에서 5명의 제자에게 강맥과 율맥을 전했다.

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회주 지현 스님)는 11월 2일 수광보전에서 '대회 도일 율사 대강백 전계 및 전강 법회'를 열었다.

이날 전계·전강을 받은 제자는 금정 승조 스님(진도 쌍계사 주지), 청수 지성 스님(청주 청수사 주지), 선해 담산 스님(총무원 총무국장), 구암 용희 스님(서울 길상사 교무국장), 대각 일몽 스님(송광사 수행) 등 5명이다.

도일 스님은 제자들에게 전계첩과 전강첩을 비롯해 '5부 율장'과 '초기 4부 경전'을 전했다. 이날 전등 여의(如意)는 차기정 장인이 제작한 작품으로, 법맥 계승의 상징성을 더했다.

도일 스님은 "계율의 뿌리는 자비를 잊지 않는 데 있다"며 "율사로 살아가는 첫걸음을 청정 수행으로 삼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을 걸어가라"고 강조했다.

송광사 율원장 대경 스님은 축사에서 "도일 율사 대강백 스님은 평생 율맥 전승에 헌신해 온 한국 율학의 중심 인물"이라며 "이번 전계 전강은 한 사제의 법맥을 넘어 한국불교 율학의 계보 계승을 확인하는 역사적 법석"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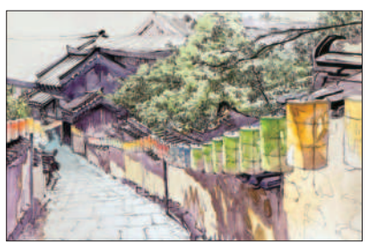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은 "불조의 혜명은 수행자의 청정한 계행에서 발현된다"며 "오늘의 법석이 한국불교 율학 전통을 다시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제자 대표로 입지발원문을 낭독한 청수 지성 스님은 "부처님의 바른 법이 세상에서 다시 꽃피도록 생명을 바쳐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도일 스님은 원조 각성 대강백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범일 보성 대율사에게서 전계를 받았으며 영축총림 전계사 혜남 스님에게 자장율맥을 이어받았다. 송광사 율원장을 지낸 뒤 부산 관음사에 주석하며 후학 지도에 전념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학생들 시선으로 그린 범어사

'화폭에 담은 범어사' 전시
11월 16일까지 성보박물관


정은희 학생의 작품 '범어사 아름다운 길'.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 범어사 주지)은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부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대관전 '화폭에 담은 범어사'를 개최한다. 지난해 범어사와 부산예술고가 체결한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예술교육 활성화 협약에 따라, 매년 5월 학생들이 범어사를 찾아 스케치한 작품 중 우수작을 선별해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는 39점이 선정됐다. 범어사는 작품 일부를 달력으로 제작, 부산예술고에 제공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백양사 지장암 현왕도, 80년 만에 제자리

1900년 봉안된 불화, 독일서 환수
근대 불교미술 귀중한 복원 사례
산내 지장암 복원 후 봉안 예정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가 산내 암자인 지장암의 현왕도 1점을 80여 년 만에 제자리로 봉안했다.

이번에 돌아온 현왕도는 광무 4년(1900) 경자년 4월, 당시 백암산 정토사(현 백양사) 지장암에 봉안된 불화로, 일제강점기 때 독일로 반출된 이후 오랜 세월 해외에 머물러 있었다. 이 불화는 독일에 거주하던 동포가 현지에서 구입해 소장해 오다가, 귀국과 함께 백양사 관계자와 인연이 닿으면서 마침내 본처로 돌아오게 됐다.

현왕도는 조선 말기의 대표 화승 화담 법립 스님(1848~1902)이 증명한 불화로, 그가 백암산에 창건한 관음암(현 지장암으로 추정)에 봉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어는 화승 종인으로, 이후 1917년 백양사 괘불 조성에도 참여한 인물로 전해진다. 이로써 백양사는 근대기 불화의 계보를 복원하고, 지역 불교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를 더하게 됐다.


독일에서 80여 년 만에 돌아온 옛 백양사 지장암 현왕도.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8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현왕도가 백양사로 다시 오기까지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장암의 위치를 발굴·확인하고, 복원 불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백양사에서 반출된 성보문화유산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구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가겠다"며 문화재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현왕도는 백양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이며, 전문가의 정밀 조사와 보존처리를 거친 뒤 신도와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향후 지장암 복원 시에는 본래 자리인 암자 내에 봉안될 계획이다.

백양사는 이번 환수 사례를 통해 근대 불교미술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성보문화유산의 귀환을 위한 모범적 선례를 남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쌍계사, 자비방생 40년·개산 1302주년 회향

11월 2일 본말사연합 방생법회
거제시에 고향사랑 1000만원
개산대재 · 차문화대축전 회향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는 11월 2일 대웅전 일원에서 제40회 본말사 연합회 자비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고산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방생 법회가 40년을 이어 온 뜻깊은 법석으로, 사부대중이 생명 존중과 자비 실천의 서원을 거듭 새겼다.

법회에는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과 주지 지현 스님, 쌍계사 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구현 경상남도의회 의원, 민기식 거제시 부시장, 정영석 하동군의회 부의장과 강희승 의원, 최양희 거제시의회 의원, 조여문 경남도청 문화예술과장 등 지역 인사와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괘불이운, 방생의식과 축원,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개회식,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주지스님 인사말, 본·말사연합회장 개회사, 회주스님 격려사, 내빈 소개, 거제시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 청법가, 법어, 축가, 사홍서원, 공지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는 11월 2일 대웅전 일원에서 제40회 본말사 연합회 자비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개산대재와 차문화 대축제도 회향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고산 대선사님의 서원과 회주 영담 스님, 그리고 본·말사 스님들의 화합으로 자비방생이 교구의 전통으로 뿌리내렸다"며 "쌍계사가 수행과 화합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인사했다.

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은 "방생은 생명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업장을 녹이고 공덕을 짓는 수행"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오늘의 방생이 생명 평화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회주 영담 스님은 "고산 큰스님께서 시작하신 방생법회가 강산이 네 번 바뀌는 세월 동안 교구의 전통으로 면면히 이어졌다"며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해 모든 중생이 평화롭고 건강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연합합창단이 '아침의 노래'와 '방생의 노래'를 합창해 도량의 서원을 북돋웠고, 청법가에 이어 계행과 자비의 가르침을 설한 고산 스님의 영상 법어가 상영됐다.

이와 쌍계사 본말사연합회는 거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민기식 거제시 부시장은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기부로 거제 시민들에게 큰 감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쌍계사 개산 1302년·차나무 식재 1197년·창건 1185년' 기념 대축전의 회향 법석도 함께 진행됐다.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 열린 대축전은 대방광불화엄경 약찬가 독송 정진, 덕민 스님의 '초의선사 동다송' 특강, 차나무 식재 1197주년 기념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능가사, '발효' 사찰음식 맛·철학 전하다

11월 2일 사찰음식 대향연…100종 발효음식 선봬

사찰음식의 깊은 맛과 수행의 정신을 담은 발효음식 전시회가 전남 고흥에서 열렸다.

고흥 팔영산 능가사(주지 진허 스님)는 11월 2일 경내에서 2025 사찰음식 홍보행사인 '능가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개최했다.〈사진〉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고흥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발효'를 주제로 된장·김치·장아찌·식초 등 4개 분야의 발효음식 100여 가지를 전시하고 일부는 시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는 능가사 회주 일귀 스님, 주지 진허 스님, 사찰음식 전문가 홍승 스님, 김경서 치유음식 사찰음식연구원, 김학규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장 등이 참여해 사찰음식의 전통과 철학을 대중에게 소개했다.

전시 개막에 앞서 법문에 나선 회주 일귀 스님은 "항상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본래 마음을 알아차리고 살아야 한다"며 "오늘은 그 마음으로 사찰음식의 참맛을 음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진허 스님은 "사찰음식 대향연에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능가사는 매년 새로운 주제로 사찰음식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다. 올해 '발효'를 주제로 한 대향연을 통해 사찰음식의 다양함과 건강한 맛을 함께 느껴 보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전시에서는 된장과 장아찌, 김치, 식초 등 발효음식의 정수를 담은 다양한 요리가 선보였다. 갓김치·열무김치·토마토 물김치 등 30여 종의 김치와 파인애플·석류·감귤·블루베리로 만든 20여 종의 식초, 도라지·연근·더덕 장아찌 등 30여 종의 장아찌가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상차림' 코너에서는 김치밥, 능이버섯 김치국, 두부 고추장 강정, 장아찌 밥 등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코너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7개 대학 학생 합동 수계법회

11월 1일, 전북지역 대학 불교동아리 70명 참여

전북지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참다운 불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수계법회가 열렸다.

김제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는 11월 1일 대적광전에서 '전북지역 청년·대학생불자 수계법회' 및 '제12회 청년·대학생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수계법회는 조계종 청년대학생 전법단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금산사가 전국 청년 대학생들의 원력과 정진을 북돋우기 위해 마련됐다.

수계법회 전계대화상은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 갈마아사리는 덕림 스님, 교수아사리는 원묵 스님이 맡아 청년 불자들의 첫 계행을 증명했다. 화평 스님은 삼귀의계와 오계의 의미를 설명하고 수계자들이 계율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이끌었다. 수계자들에게는 수계첩과 보리수 합장주, 석초 스님(전주 서고사 주지)이 준비한 은합장주가 수여됐다.



화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불자가 된다"며 "신해행증을 통해 붓다의 깨달음인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즉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해 불교를 이끌어 가는 동량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북대, 한국농수산대, 원광대, 경상대, 조선대, 광주여대, 전남대 등 전국 7개 대학 불교동아리 소속 학생들과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 회원 등 7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에는 주지 화평 스님과 덕림 스님, 원묵 스님을 비롯해 금산사 포교국장 효진 스님,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주지 제환 스님, 전북대 대불련 지도법사 우경 스님, 원광대 대불련 지도법사 정안 스님, 전주 서고사 주지 석초 스님, 인담 스님이 함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인사, 제3기 전통판각 교육 고불식

11월 1일, 3년 과정 입재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11월 1일 해인사 판각학교에서 '팔만대장경 복각을 위한 제3기 전통판각 교육 고불식'을 봉행했다.〈사진〉

해인사 장경도감(이사장 혜일스님) 주관으로 열린 고불식에는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판각학교장 도융 스님, 총무국장 향록 스님, 염불원장 광해 스님, 승가대 및 율학승가대학원 교수사와 학인, 박영덕 각자장, 1·2기 수료생과 3기 교육생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장경도감 이사장이자 해인사 주지인 혜일 스님은 치사에서 "3년 동안 이어질 이 배움의 인연을 통해 정신의 안정과 집중을 얻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해인사 장경도감은 지난해 팔만대장경 복각의 첫걸음으로 판각학교를 개설해 전통각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기 교육은 학인 스님 중심으로 진행됐고 2기부터는 일반에 개방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35사단 장병 수계법회

11월 2일, 호국충경사서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전북지역 향토사단인 육군 35사단 장병 30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11월 2일 35사단 호국충경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이날 법회는 전계아사리 경우 스님, 갈마아사리 대원 스님, 교수아사리 종고 스님을 수계법사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장병들은 전계아사리 경우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와 신도오계를 수지하며 불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주지 경우 스님은 "오늘의 수계법회를 통해 수지한 삼귀의계와 오계의 계율이 힘든 병영 생활을 지켜 주는 호법신장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계율이 군생활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밝은 미래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안 붓다라마사원, 제3회 가사공양

11월 2일, 우안거 해제 기념



천안 태국불교 사찰인 붓다라마사원(주지 찌라삭 스님)은 11월 2일 '제3회 가사공양(가띤 법회)'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우안거 해제를 기념해 승단의 청정한 계행을 찬탄하고, 지난 10월 24일 서거한 태국 씨리킷 황후를 추모하며 그 자비와 은혜를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태국 교민들은 직접 만들어 온 전통 음식을 70여 개의 부스에 정성껏 차려 참가자들과 나누고 가사공양의 의미를 새겼다.

주지 찌라삭 스님은 회향 인사에서 "가사공양의 공덕이 각자의 삶에 평화와 자비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 도량이 태국 불자들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불법 수행을 통해 서로를 보듬는 신심의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익산 정각사, '해 지고 달 품다' 산사음악회

11월 1일, 경내 특설무대서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 스님)는 11월 1일 '해는 지고 달을 품다'를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극락전 앞 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린 산사음악회는 익산시 오산면 색소폰 동호회의 식전 공연 후 퓨전국악 아트롬의 5인조 퍼포먼스와 국악인 김아영, 트로트 가수 문희옥과 혜민, 홍원빈의 공연이 선보였다.

주지 일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정각사가 마음을 쉬는 공간,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전·세종·충청 포교역량 결집한다

11월 22일, 광제사서 문화축제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포교역량을 결집하고 문화로 화합하는 축제의 마당이 열린다.

11월 22일 세종 광제사 야외무대에서는 대전·세종·충청 포교역량 결집대회 '대전·세종·충청 문화대축제'가 개최된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법주사·마곡사·수덕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250 아라한 야단법석'을 주제로 지역 불교계의 포교활동을 활성화하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각 교구본사 및 말사의 스님과 신도회, 불교대학, 어린이·청소년 단체, 청년 불자, 전법단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사전 접수와 현장 등록으로 할 수 있다. 02-2011-1891

유재상 충청지사장

“통도사 의례, ‘신라 소리’ 계승했다”

통도사, 11월 2일 ‘제1회 통도소리 학술대회’

조석예불, 삼보이운 등 조명해
“현재도 살아 있는 전통” 강조
신라부터 이어진 중요 의례문화
성파 스님 “근원 시작 연구 필요”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통도사는 11월 2일 해장보각에서 ‘제1회 통도소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통도사에 전해지는 전통 의례가 신라부터 이어진 소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1월 2일 해장보각에서 ‘제1회 통도소리 학술대회’를 열고 통도사 의례 전통과 범음성의 현대적 가치를 살폈다.

학술대회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염불원장 법산 대종사, 율주 덕문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함께했다.

발표자들은 통도사의 예불과 삼보이운이 옛 형식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승되는 ‘살아 있는 전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도사가 조석예불에서 행해 온 11정례와 개산대재의 삼보이운 의식은 신라 시대부터 이어진 불교 음성과 의례문화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중요한 근거라는 설명이다.

양영진 국립민속국악원 학예연구사는 2010년과 2025년 새벽예불을 비교했다. 양 학예연구사는 “예불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음향기기 등이 도입되었지만, 전승의 핵심 정신과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신라의 소리가 지금도 예불 속에서 살아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원명 스님(염불대학원 교수사)은 개산대재의 중심의례인 ‘영축 삼보이운’의 명칭과 절차를 소개했다. 스님은 “역사 기록과 문헌을 근거로 통도사가 영남 범패 전통의 중심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하며 “의례 기록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소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대우교수는 “통도사 11정례는 사찰정화운동 이후 사라진 청규범패의 흐름을 이어 가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어 스리랑카의 불치사리 ‘페라헤라’와 비교하며, 삼보이운이 해외 사례와 나란히 설명될 수 있는 의례 구조임에도 국내 인지도가 낮은 현고 장엄과 법구 복원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총평을 통해 “통도사 의례 전승 논의는 결국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라는 역사 인식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자장 율사는 당대 중국에 단순히 공부하러 간 유학생이 아니라, 황제가 직접 국빈으로 맞이한 인물이라는 기록이 중국 측 자료에도 분명히 남아 있다”며 “이 사실은 통도사 창건의 위상, 그리고 그 의례가 지닌 상징성을 재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도사의 의례 전통은 단지 옛날 방식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과 정체성 자체가 분명한 역사적 기반 위에 놓여 있다. 발표자들이 오늘 다룬 문제의식이 단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구하지 않으니 마음이 평온하네

⑰ 이무소득 무유공포

以無所得 無有功布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이다. 오스만 제국 치하 크레타 섬에서 태어난 그는 평생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굴종과 지배에 맞서 인간의 자유를 추구했다. 그의 대표작 〈그리스인 조르바〉는 인간이 온전한 주체로서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생생히 보여 준다.

그리스 정교 문화권에서 자랐지만, 그는 붓다·니체·베르그송 등의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탐구는 인간이 만든 관념과 문화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로 서고자 한 그의 지향을 잘 드러낸다.

그의 묘비명은 불자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그 말속에는 〈반야심경〉을 비롯한 대승불교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 전반부는 오온·십이처·십팔계·십이연기 등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존재가 ‘본래 있지 않음[空]’을 통찰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이어진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여기서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은 ‘부질없이 갈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전에는 이를 ‘무소득(無所得)·무소구(無所求)’라 한다. 삶의 모든 현상은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므로, 그것의 실상은 공(空)이다. 이 사실을 통찰할 때 우리는 집착하거나 갈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기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도 없다. 이 점에서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은 〈반야심경〉의 사상과 자연스럽게 맞닿는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나 권력의 욕망을 버린다는 뜻에 그치지 않는다. 〈대품반야경〉은 이렇게 말한다.

“만약 열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보살이 아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도 그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순간 자유와 평온에서 멀어진다는 뜻이다.

‘하되 함이 없이 하라(爲而無爲)’.

속도와 효율에 매여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려놓고, 해야 할 일은 관념과 집착을 벗어나서 하는 것이다. 밝은 가을볕에 마음이 한가롭다. 더 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화순 불암사 주지〉

고려·조선 불교문화유산 국가지정유산 ‘보물’ 지정

‘안동 광흥사 응진전’ 조선 불교건축 변화 보여 줘
‘고려 오백나한도’ 몽골 침입 극복 원력 담은 수작

고려·조선 시대 불교문화유산들이 잇달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장(청장 허민)은 “조선 시대 불교 건축과 사찰 운영의 변화를 보여 주는 ‘안동 광흥사 응진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11월 3일 밝혔다.

‘안동 광흥사 응진전’은 창건연대가 명확하지 않으나, 망와에 기록된 글을 통해 1647년(인조 25년) 기와 공사를 했음을 알 수 있어, 그 이전인 조선 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827년과 1946년 사찰의 큰 화재로 주불전이었던 대웅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됐으나 응진전은 중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화를 면한 이후로 사실상 광흥사의 중심 불전 기능을 수행하게 된 보기 드문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응진전의 공포는 조선 전기의 양식을 계승해 중기·후기에 이르기까지 불전 건축양식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잘 보여 주는 형태를 지녀 학술적 가치가 높다”면서 “보물로 지정한 ‘안동 광흥사 응진전’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찰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적극 행정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유산청은 “부처님의 힘을 빌려 몽골의 침입이 끝나기를 기원하며 조성된 ‘고려 오백나한도’와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등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된 ‘고려 오백나한도’는 13세기 몽골의 고려 침입 시기에 국난 극복을 위해 일괄로 제작된 오백나한도 500폭 중 한 폭으로, 2016년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 오백나한도와 함께 제작된 것이다. 지정 예고 대상은 제329원상주존자(圓上周尊者)를 표현한 것이다.

한 폭에 한 존자(尊者)만을 담은 형식으로, 존자가 너른 바위에 걸터앉아 화면 상단 왼쪽에 있는 용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존자의 얼굴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역동감, 필선의 능숙한 구사 등 뛰어난 화격을 갖추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고려 오백나한도’는 고려 불화의 특징인 품격 높은 예술성과 신비로운 종교적 감성을 담고 있으며, 남아 있는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고려 불화 중 조성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함께 보물로 지정된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성발원문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제작 시기 및 조각승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불상에서 보이는 얼굴과 이목구비의 표현, 신체 비례, 활달한 선묘(線描) 등 양식적 특징상 16세기 중엽에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현존 수량이 극히 적은 16세기의 불상으로 희소성이 있다”면서 “과학적 조사를 통해 제작 기법이 명료하게 밝혀져 있어 불교조각사, 특히 조선 전기 소조불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신중일 기자


보물로 지정된 조선 시대 전각 안동 광흥사 응진전.



K-사찰음식 맛과 마음, 유럽에 전하다

문화사업단, 佛파리 · 英런던서 '사찰음식' 행사

파리 만찬, 장인 여거 스님 맡아
'더덕 버무리' 인기, 참가자 호평
런던 르꼬르동블루, 한국문화원과
'한국 사찰음식 주간' 성공적 개최
명장 정관 스님 오찬 · 강연 진행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영국과 프랑스에서 사찰음식 강연, 체험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10월 28, 29일 르꼬르동블루 런던캠퍼스에서 열린 채식전문과정 강연에서 사찰음식 장인 여거 스님과 수강생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 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 사찰음식의 맛과 철학이 영국과 프랑스에 전해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서 사찰음식을 통한 불교 수행 정신과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 문화외교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년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대리대사 김병준) 초청으로 시작됐으며, 프랑스 미식가협회 사무총장 로랑 풀티에 뒤메닐(Laurent Poultier du Mesnil)과 파리 한식 레스토랑의 오너셰프 피에르 상 부아예(Pierre Sang Boyer) 등 현지 셰프 및 인플루언서들이 함께해 한국 사찰음식의 철학적 미학을 체험했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프랑스-한국 두 나라의 깊은 우정을 기념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지구의 건강을 위한 사찰음식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의 만찬은 사찰음식 장인 여거 스님이 준비했다. 제주 더덕에 대추·포도 유차청을 곁들인 한국식 샐러드 '더덕 버무리'가 특히 인기였다. 참가자들은 "균형 잡힌 맛과 자연의 조화가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방송인 로랑 풀티에는 현지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날의 사찰음식 경험을 소개할 계획임을 전했다.

프랑스에 이어 런던에서는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과 르꼬르동블루 런던(Le Cordon Bleu London)과 '한국 사찰음식 주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문화사업단은 지난 2021년 4월 주영한국문화원, 르꼬르동블루 런던과 3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1년부터 채식전문과정(Plant-based culinary Arts) 내 한국 사찰음식 강연 및 시연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문화외교를 이어 오고 있다.

런던 첫 일정으로 일화 스님은 주영한국문화원을 방문해 "한식과 사찰음식이 영국에서도 인기임을 실감하며, 선명상과 참선수행을 통한 마음공부와 건강한 사찰음식을 통한 몸건강의 조화를 교육·홍보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선승혜 원장은 "영국은 차문화가 발달해 '다선일미(茶禪一味)' 수행 전통이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채식과 불교 철학, 문학에 대한 영국 현지의 높은 이해와 관심이 사찰음식 확산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화답했다.

특히 10월 28일과 29일에는 르꼬르동블루 런던캠퍼스에서 일반인과 채식전문과정 수강생 대상 강연이 열렸다. 여거 스님은 "사찰음식은 단순 채식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라며 절제와 명상의 철학을 전했으며, 르꼬르동블루 런던 학장 에밀 미네프(Emil Minev)는 "사찰음식은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철학이 담긴 문화예술이며 문화사업단이 추진하게 될 사찰음식의 유네스코 등재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채식전문과정을 1년 2코스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10월 31일 런던 중심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코드 바이 르꼬르동블루(CORD by Le Cordon Bleu)'에서는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이 만든 요리가 오찬으로 제공됐으며 11월 1일 주영한국문화원에서는 정관 스님의 '음식명상(Food Meditation)' 강연이 진행됐다.

11월 3일에는 르꼬르동블루 런던에서 16명의 언론인,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관 스님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정관 스님은 시그니처 메뉴인 표고버섯 조청조림과 감말랭이 고추장 무침을 시연했다.

일화 스님은 "인류 평화와 지구 건강을 함께 회복하는 수행문화로서의 사찰음식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유럽 간 문화교류를 지속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풍철 사찰 방문 시 관람예절 지켜 주세요"

국가유산청, 관람예절 캠페인 운영
문화유산관람료 감면에 방문 증가
유산 보존 관리 어려움 따른 조치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과 사찰 방문객들에게 관람예절을 요청하는 캠페인이 전개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단풍철 문화유산 관람 성수기를 맞아 국가유산청 소식지 〈국가유산사랑〉 11월호와 국가유산청 누리소통망(SNS), 네비게이션 앱 T맵을 통해 '문화유산 관람예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시행된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65개 사찰의 문화유산 관람료가 감면됨에 따라 사찰을 찾는 관람객 수도 크게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관람객 증가에 비례해 관람 환경 악화와 국가유산 보존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종교공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 지키기 △허용된 공간만 관람하기 △사찰 문화유산 만지거나 낙서 금지 △고성방가 금지 △사찰 내 흡연·음주·취식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람예절 홍보물(포스터·카드뉴스·인스타툰 등)을 〈국가유산사랑〉 11월호와 국가유산청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사찰 인근에서 T맵을 사용하는 차량이용자에게는 관람예절 안내 문구도 11월 20일까지 송출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자 종교공간으로서 사찰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에 '문화유산 관람예절 캠페인'을 운영하게 됐다"고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찰이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할 국가유산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관람예절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일곱 법고' 법음으로 만나는 선명상

11월 30일, 경기아트센터서
종단협 7명 스님 법고 합주

법고의 진동을 따라 호흡을 가다듬으며 선명상을 경험하는 특별한 공연이 관객과 만난다.

경기일보, 전통국악예술교육협회가 주최하고 법고보존회, MAKE WITH가 주관하는 '법음-일곱 법고 세상으로 나오다'가 11월 30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다. 공연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후원한다.

이번 공연의 핵심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7명의 스님이 참여하는 법고 합주다. 사찰 의식에서 쓰이는 법고를 무대 예술로 재구성해 관객이 울림을 직접 체감하도록 했다. 법고가 동시에 울리는 합주는 불교 의식에서는 드문 시도로,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포교 방식으로 기획됐다. 스님들은 법고 합주에 남북 평화와 사회 갈등 치유, 종교 간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낼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법고 외에도 전통북춤, 전통북, 고구려북, 싱잉볼, 화관무, 판굿 등도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공연 중에는 '선명상'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관객은 북소리에 맞춰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의 중심을 찾는 선명상의 여정을 함께하며 무대 전체가 하나의 수행 공간으로 변할 예정이다.

김혜진 전통국악예술교육협회 대표는 "공연 '법음'은 전통의 울림으로 관객에게 성찰의 시간을 선사하는 공연"이라며 "불교문화와 현대 공연예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한지·닥종이에 담아낸 사유의 궤적들

개관 18주년 영담한지미술관
'천 년의 숨결–닥종이 사랑'展


영담 스님의 작품 '어머니'.

한국 유일의 한지 전용 미술관인 경북 청도 영담한지미술관(관장 영담 스님)이 개관 18주년을 맞아 '천년의 숨결-닥종이 사랑' 전을 연다. 전시는 서울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영담한지미술관은 한지와 닥종이를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미술의 창작을 이어 왔으며,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예술을 기록해 온 한지를 오늘날 예술의 소재이자 조형의 매체로 새롭게 확장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요 작가들이 한지와 닥종이의 본질적 미감을 새롭게 해석하며, 전통적인 재료가 가진 현대적 잠재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인다.

전시에는 정오 스님, 권지현, 김경미, 김영목, 오성만, 이건희, 재이, 전옥희, 정해경, 최한규 등 다수의 중진 및 신진 작가들이 참여한다. "한지의 기술적 제작에 머무르지 않고, 동시대 미술의 주요 표현 매체로써 한지와 닥종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보다 깊이 있는 자유와 확장성을 보여 줄 예정"이라는 게 미술관 측 설명이다.

이번 전시는 한지라는 오래된 재료가 지닌 가장 현대적인 순간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관장 영담 스님은 "한지와 닥종이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소중한 재료이자 매체"라며 "이번 전시가 전통 재료의 확장성과 닥섬유의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념 전시 오프닝은 11월 19일 오후 4시에 진행되며 최보결 춤의 학교에서 '마더스 프레즌트'를 축하 공연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인도 문화탐방 9일
인도의 주요 관광지만 가는 일정입니다.
출발일 : 2월11일~2월19일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인도 최고의 조각상)-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350만원

인도, 네팔 성지순례 10일
1월23일 출발~2월01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인도양의 진주 아름다운 스리랑카 성지순례
출발일 : 1월14일~21일
■ 일정: 인천-콜롬보-담불라-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홍차산지)-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79만원

남미여행 5개국 18일
페루 마추픽추,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칠레 토레스델파이네 국립공원,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엘칼라파테 빙하, 브라질 이과수폭포,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주요 관광지
출발일 : 3월20일~4월06일
▶ 동참금 : 1690만원(11월30일까지 신청시 이후는 1790만원)

동유럽 5개국 11일
동유럽 5개국 헝가리-크로아티아(드브로브니크 포함)-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체코의 주요 명소를 돌아보는 멋진 코스입니다.
출발일 : 6월01일~6월11일
▶ 동참금 : 549만원

이탈리아의 알프스 돌로미테 여행 10일
돌로미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로
7월초는 야생화가 만발한 환상적인 여행 일정입니다.
출발일 : 7월09일~7월17일
▶ 동참금 : 749만원

남프랑스 힐링여행 12일
니스-모나코-액상프로방스-아비뇽-아를-카르카손 등
아름다운 남프랑스만 여행하는 최상의 힐링여행
출발일 : 4월30일~5월11일
▶ 동참금 : 790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출발일 : 6월16일~7월01일
▶ 동참금 : 570만원

고려 시대 조성 오층석탑 2기 국보된다

보원사지 ·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보 지정 예고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고려 광종代 조성된 '고려 석탑'
'석탑 조성시기 편년 기준' 평가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1011년 건립…조성 시기 명확해
독창적 조각…예술적 완성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사진 왼쪽)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사진 오른쪽).

고려 시대 양식을 담고 있는 오층석탑 2기가 국보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석탑 자체의 건립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탄문(坦文, 900~974)이 보원사에 있을 때 고려 광종을 위하여 봄에 불탑과 불상을 조성했다는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의 비문과 함께 석탑의 조영기법, 양식을 고려했을 때 고려 광종 때인 10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부는 위아래로 2층의 가구식 기단을 구성했고, 부조 조각기법으로 아래층 기단 면에는 형상이 다른 사자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위층 기단 면에는 팔부중상(八部衆像)을 유려하게 조각해 통일신라의 조각양식과 수법을 계승하면서도 고려 시대 석탑의 특징도 잘 표현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비교적 명확한 조성시기와 함께 고려왕실과 불교와의 관계를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편년(編年) 기준이 되는 고려 시대 석탑"이라며 "통일신라 말기 조영기법과 양식을 계승하면서 고려 시대 새로운 기법들이 적용된 석탑으로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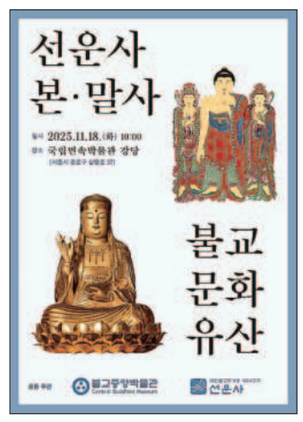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은 1011년(고려 현종 2년)에 건립됐다. 석탑에 새겨진 190자의 명문(銘文)으로 구체적인 건립시기와 과정, 당시 사회상 등을 알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기단부는 2층의 가구식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층 기단에는 각 면마다 3개의 안상(眼象)을 배치하고 안상 내에 12지신상을 조각했다. 위층 기단에는 각 면마다 2구씩 팔부중상을 조각했다. 이는 1층 탑신의 금강역사상의 배치와 함께 다른 석탑에서는 유사성을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방식이며, 복식이나 지물 또한 특이해 예술적 완성도가 높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을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보로 지정할 예정이다.

선운사 본말사 문화유산 가치 조명한다

불교중앙박물관 · 선운사 공동
11월 18일 국립민속박물관서
내년 상반기 특별전시 연계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와 말사들의 불교문화유산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스님)과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11월 18일 오전 10시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선운사 본·말사 불교문화유산'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시 '도솔산 선운사'(가제)와 연계한 사전 행사로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인 고창 선운사, 부안 내소사, 부안 개암사 등이 봉안·소장한 조각, 회화, 공예, 서지, 섬유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유산들의 가치를 전문 학자들이 조명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인 '선운사의 불교문화유산'에서는 불교조각사 연구 권위자인 정은우 부산박물관장(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시대 양식을 담은 도솔산 선운사의 삼지장'을 시작으로 △선운사 불조도와 고승진영으로 본 문중 변화와 그 의미(이용윤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선운사 〈석씨원류〉 간행과 목판(이상백 부산대 교수) △선운사 영산전 조선 후기 16나한상 및 권속상의 복장물(유근자 국립순천대 학술연구교수)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2부 주제인 '선운사 말사의 불교문화유산'은 금속공예사 연구의 권위자인 최응천 동국대 석좌교수의 기조강연 '국보 내소사 동종과 장인 한중서'를 시작으로 △내소사 묘법연화경 사경보 및 포갑의 섬유사적 가치 재조명(심연옥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이후에는 김정희 원광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미경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리송재 불교문화유산연구소 팀장, 심주완 불교중앙박물관 종무관, 이승희 국립순천대 학술연구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세미나는 사전 신청 및 현장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누리집(museum.buddhism.or.kr)에 게시된 접수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청화 스님 '염불선', 무형유산으로 보존을"

청화사상연구회 제13차 세미나
혜운사 활용안 조명 연구 발표


전남 무안에 건립된 혜운사와 청화 스님의 수행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 전경.

근현대 한국불교 선지식 무주당 청화(1923~2003) 대종사가 주창한 염불선을 지금 시대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는 11월 2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염불선의 실천수행과 교화'를 주제로 제1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행사는 벽산 무주회(문장 일묵 용타 스님)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염불선 교화를 위한 청화기념관 활용 방안'을 통해 한국불교의 중요 무형유산인 염불선의 가치를 조명하고, 청화기념관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청화 스님이 주창한 '염불선'이 현대 한국불교 수행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무형유산'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계종 총무원이 2013년 제정한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범주를 근거로 "불교의 수행과 관련된 전통지식 및 관습의 영역에 '염불선'이 해당된다"고 봤다.

또한 '염불선'은 한국불교의 사상과 수행이 집약된 구성원들의 '집단기억'임을 강조한 이 교수는 이를 담아내고 종국에는 확장시킬 터전으로 전남 무안 혜운사와 경내에 건립된 청화기념관을 꼽고 "집단기억을 재맥락화해 특별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염불선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염불선 문화콘텐츠 개발의 방향으로 △염불선의 역사성, 종교적·문화적 가치 등 복합적 가치 발굴 △염불선 원천자료의 디지털화와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을 위한 단계별 목표 수립 등을 제시했으며, 혜운사와 청화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4단계 활용 종합계획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혜운사 활용 종합계획은 혜운사가 지니는 염불선 근본도량으로서 위상에 맞는 토대를 구축하고 문화유산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다양한 제도·행정·사회적 지원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만일염불결사'와 '염불선 순례길(가칭)'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만일염불결사'는 청화 스님의 유업을 계승하고 염불선의 확산을 위한 공동 신앙운동"이라며 "만일염불결사는 염불선의 수행과 확산을 이끌어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원학 스님, 차 사랑방 '다연산방' 개원

11월 8일 개원…공부 모임·템플스테이 운영

원학 스님(삼화사 회주)이 경산에 다연산방(茶緣山防)을 열고 공부 모임과 템플스테이 등을 운영하며 차 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11월 8일 개원한 다연산방은 차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차 고전 공부 모임과 차를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 등을 운영한다. 2주에 한 번 모여 함께 고전을 공부하고 차를 즐기는 '청묵예원' 회원도 모집한다.

원학 스님은 "삼화사에서 차 공부 모임을 운영해 왔지만, 차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다"며 "팔공산 자락에서 자연을 느끼며 차를 즐기고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초의 스님의 〈동다송〉과 한재 이목의 〈다부〉를 번역·해설한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와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를 출간한 바 있다. 차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22회 초의문화제 초의상을 수상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dayeonsanbang.kr) 참조.

여수령 기자

Seoul International Meditation Expo
The 6th Seoul International Meditation Expo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2025 명상, 하나 되는 길
2025 Meditation, A Journey Into Wholeness
dongguk UNIVERSITY
명상 체험
세계 명상 체험
일시
11월 22일 토요일
11월 23일 일요일
10:00-18:00
장소
3호선 학여울역 SETEC 2전시실
오프닝 공연
11월 22일 토요일 14:00
출연 | 뉴진스님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5~11/11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백일 동안 백가지 이야기	이현수	담앤북스
2	대념처경	정관	조계종출판사
3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4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5	참선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박산무이 스님의 참선경어)	원택	장경각
6	법화경(경전조사어록5)	우학	좋은인연
7	대혜서장	김태완	침묵의향기
8	천지팔양신주경	김현준	효림
9	핼(임제선사어록)	임제/고광 역주	사리각
10	과학이 주목하는 죽음 이후의 일들	김성구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멸(2)	이각 지음	지혜의눈
2	법구경	식카와띠 위뿔라냐니	담마디빠
3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4	마음닦는 법	김재웅 지음	용화
5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6	철학자와 함께읽는 동화	이일야	담앤북스
7	불교개론	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출판사
8	절집길라잡이	김영숙 지음	운주사
9	화 :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10	상윳따니까야(1)	각묵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깨달음의 노래, 생활의 지혜로 풀다



증도가 강설
진우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2만7000원

영가 현각 스님의 선수행 요체
선적 상징·비유를 일상 언어로
삶의 구체적 장면 비유해 설명
고락·시비 넘어 마음 비추는 법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다만 근본을 얻을 뿐 말단을 근심하지 말지니(但得本草愁末) 마치 깨끗한 유리가 보배 달을 머금음과 같구나(如淨瑠璃含寶月)."

〈증도가(證道歌)〉는 중국 당나라 영가 현각(永嘉玄覺, 665~713) 스님이 선불교의 수행과 깨달음을 집약해 남긴 선시(禪詩)다. 글자 그대로 스님이 직접 깨친[證道] 경지를 게송으로 노래[歌]했기에, 참선 수행자들에게는 '깨달음의 교과서'로 여겨진다. 그러나 짧고 압축된 게송은 선(禪)적 상징과 비유로 가득해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은 "영가 스님이 〈증도가〉에서 말하는 내용은 사실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수행을 통해 마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 도달했다 해도 체득하기까지는 상당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짚었다. 스님이 〈증도가〉 강설에 나선 이유다.

그간 〈신심명〉과 〈금강경〉 등 불교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온 진우 스님은 〈증도가〉 강설 역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불교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스님은 "깨달음은 특별한 곳이 아닌 지금 이 자리, 현재의 마음을 여여히 바라보는 데 있다"며 〈증도가〉에 담긴 지혜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장면에 대입해 설명한다.

'궁색한 불제자 입으로는 가난하다 말하나 실로 몸은 가난해도 도는 가난하지 않음이라(窮釋子口稱貧 實是身貧道不貧)'는 게송을 풀이한 구절이 대표적이다. 진우 스님은 선물 받은 안경을 택시에 두고 내린 일화를 예로 들며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순간 아깝기도 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었으나 곧 생각을 지워버렸다. 물건을 가지면 이내 집착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 가지거나 갖지 않는 두 가지 분별의 마음마저 사라져야 진정한 무소유요 가난하지 않음"이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또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사업이 잘되거나 실패했을 때, 사랑과 이별을 경험했을 때 등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의 파도를 〈증도가〉의 지혜와 연결해 생각하게 한다.

핵심은 '좋다 싫다' 하는 고락(苦樂)과 '옳다 그르다' 하는 시비(是非) 분별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며 고락의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 남는 것은 마음의 응어리와 괴로움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지나치게 집착하여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부담을 줄 정도로 화를 낸다면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다. 다만 지혜가 부족하고 업(業)과 습(習)이 두터워 이를 조절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마음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매사에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좋고 싫다는 분별된 감정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차피 모든 일은 인과(因果)와 연기(緣起)에 따라 한 치 오차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경전 해설자가 아니라 독자와 함께 걷는 '길동무'를 자처하는 스님의 글은 무겁지 않다. 깨달음의 노래를 오늘의 언어로 되살려 생활의 현장으로 가져온 〈증도가 강설〉은 우리에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내 마음을 찾아서 지금 당장 편안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려 준다.

진우 스님은 대강백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담양 용흥사 몽성선원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2022년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후 '선명상'으로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원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법석과 콘텐츠 발굴에 진력하고 있다. 저서로 〈두려워하지 않는 힘〉, 〈제발, 걱정하지 마라〉, 〈만선동귀집 총송〉, 〈신심명 강설〉, 〈개미의 발소리〉, 〈진우 스님의 금강경 강설〉 등이 있다.

순간이 모여 삶은 따뜻해진다



순간들
주석 스님 지음
담앤북스
1만7800원

두 산문집서 엄선한 특별판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삶을 살아 내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 안에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순간들이 우주를 이룹니다."

주석 스님이 그간 펴낸 두 권의 산문집에서 엄선한 글로 엮은 특별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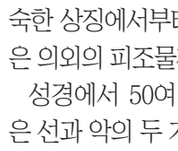
1장에는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에서 수행자의 눈으로 바라본 일상의 단상과 삶의 중심을 지켜 내는 지혜를 전하는 산문을 골라 담았다. 2장은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에 실렸던 자작시로, 군더더기 없는 언어로 응축된 울림을 전한다. 3장 '에피소드: 나를 가만히 다독거립니다'에는 순간순간을 붙잡아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법을 알려 주는 짧은 산문이 실려 있다.

주석 스님의 글이 품은 따뜻한 온기는 우리에게 다정한 위로가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힘을 준다.

주석 스님은 현재 부산 대운사 주지와 쿠무다문화재단 이사장 등 문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소임을 맡고 있다. 여수령 기자

이웃 종교 책 읽기

자연이 전하는 무정설법



성경 속 동물과 식물
허영엽 지음
가톨릭출판사
2만2000원

동식물 78종에 담긴 '신의 섭리'
자연에 대한 같고도 다른 시선

연꽃, 코끼리, 사자. 자연스레 '불교'가 연상되는 단어들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포도나 가시나무, 뱀 등이 아닐지.

〈성경 속 동물과 식물〉은 서울대 교구 허영엽 신부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연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16년 만에 개정판으로 단장한 이 책은 성경에 등장하는 78종의 동식물을 통해 각 존재가 지닌 상징과 의미를 세심하게 풀어낸다. 눈앞의 꽃 한 송이, 길가의 새 한 마리에도 '신의 섭리'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말씀 속 살아 숨 쉬는 동물 이야기'에서는 뱀과 비둘기, 낙타처럼 익숙한 상징에서부터 용, 모기, 벼룩 같은 의외의 피조물까지를 다룬다.

성경에서 50여 차례 언급되는 뱀은 선과 악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간교한 존재로 그려지지만, 비잔틴 교회나 콥트 교회 주교들의 지팡이에 새겨진 뱀 형상은 지혜를 상징한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건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온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비롯됐음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리는 거짓 예언자를, 개구리는 하느님의 재앙을, 메뚜기 떼는 심판의 도구를, 독수리는 해방과 강인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성경과 그 시대 역사·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같은 동물을 바라보는 각 종교의 다른 시선을 짚어낸 점도 흥미롭다. 상상의 동물인 용은 불교에서는 중생을 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동물로 여겨지는 반면, 기독교에서는 서양 문화 전반이 그렇듯 악한 세력의 상징으로 여긴다.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적대 세력으로 자주 등장하기에, 용과 싸워 승리하는 이야기는 기독교 미술에서 애용되는 주제였다.

'하느님의 정원 가득 채운 식물 이야기'에서는 평화와 축복의 상징 포도와 축복의 근원이 되는 밀, 부활을 상징하는 편도나무, 승리와 평화를 나타내는 올리브나무 등을 소개한다. 특히 아주 작은 사물에 비유되는 겨자씨는 불교에서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간다'는 비유로 실상의 깨달음을 끌어내고, 성경에서는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말로 작은 믿음에 엄청난 능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 해와 달, 동물과 식물 등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만드신 뒤,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하느님께서 들려주신 노래를 들을 수 있기에 들판에 핀 한 송이 꽃에서도 우리는 큰 은총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염수정 추기경은 추천의 글에서 "성경에 나오는 문화, 역사 등 특별한 환경을 알면 훨씬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들판의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는 성경 구절에 불교의 '무정설법(無情說法)'을 겹쳐 보게 된다. 언어를 넘어선 가르침이 자연 속에 이미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여수령 기자

증현 지음 | 304쪽 | 22,000원

증현 스님 1998년 송광사에서 출가해 봉암사, 송광사, 화엄사, 석종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였다. 현재는 무등산 증심사 주지로서 삶의 자리에서 수행을 실천하고 있으며, 불교의 가르침과 사람 사는 세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불교가 한 번쯤 궁금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한 번'이다!

정답 없는 세상, 불교가 던지는 유쾌한 사유의 힌트
드디어 시작하는 내 생애 첫 불교 수업!

불교, 한 번쯤은 궁금하잖아

중현 스님이 콕 집어서 알려 주는
불교 핵심 교양수업

윤리와 가치가 힘을 잃은 오늘날, 우리는 모든 선택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며 살아간다. 『불교, 한 번쯤은 궁금하잖아』는 방향을 잃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말해 준다. 일상 속에서 불교의 지혜가 스미는 순간을 포착하며 우리 내면에 있는 사유의 힘을 깨우고, 마음의 기준을 세워 주는 든든한 지침을 만나 보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천수경에 행복 비결 있다”



매일매일 천수경
동명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1만 8000원

하루 한 번, 매일매일 꾸준히 마음공부로 완성하는 수행법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광교육원장 동명 스님은 11월 4일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매일 〈천수경〉을 공부하고 실천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의 대표적인 다섯가지 수행법인 계율,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이 망라돼 있는 〈천수경〉은 주술적 의미의 밀교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에 기도와 예불의 의식문을 곁들인 독특한 구조의 경전이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읽히는 경전 중 하나이자 불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불광사 불광교육원장 동명 스님이 〈천수경〉에 담긴 깊은 뜻을 불자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매일 그 뜻을 음미하며 기도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매일매일 천수경〉을 출간했다.

동명 스님은 불자들이 〈천수경〉을 독송하고 사경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실천해야 일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나아가 인생이 바뀐다고 말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천수경〉을 독송하고 진언에 담긴 의미를 헤아리며 그 가르침대로 공부해 나가면 어느 순간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 스님이 “〈천수경〉에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 성공하는 길, 행복해지는 길이 있다”고 단언하는 이유다.

〈매일매일 천수경〉은 여느 ‘해설서’와 결이 다르다.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경전의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나아가 〈천수경〉이 제시하는 행복의 비결과 마음공부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천수경〉의 역사적·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마지막 9장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복해지기 위한 열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집약해 제시한다. 그 방법은 ‘긍정적인 말하기’, ‘부처님·보살님께 귀의하기’, ‘분명한 원을 세우고 간절히 원하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칭찬하기’, ‘참회하기’ 등 불자라면 매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이다.

책 말미에는 ‘조계종 종단 표준본’과 ‘광덕 큰스님 번역본’의 〈우리말 천수경〉, 〈한문 천수경〉을 수록해 원하는 대로 골라 독송할 수 있도록 했다.

동명 스님은 2010년 지홍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해 사미계를 받았다. 현재 불광교육원장이자 조계종 교육아사리로 활동하고 있다. 1989년 계간 〈문학과사회〉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후 199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 당선해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20여 년간 활동했다. 1994년 제13회 김수영문학상을 받았으며 출가 후에도 활발한 집필활동을 이어 가며 2022년 제13회 대원불교 문화상을 수상했다.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역사 속 한국비구니〉

〈정원예찬〉 등 ‘올해의 불서 10’ 11월 25일 시상식…독자상 2인도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가 펴낸 〈역사 속 한국비구니〉(전영숙 집필, 민족사)가 제2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윤창화)는 11월 5일 ‘2025년 올해의 불서 10 및 제22회 불교출판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 관련 도서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26개 출판사에서 도서 90종을 접수했다.

심사 결과 우수상은 〈정원예찬〉(현진 스님 지음, 담앤북스)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목경찬 지음, 불광출판사)이 수상했다. 한길번역상은 〈유식이십론〉(강형철·유리·구미숙 역주, 씨아이알), 붓다북학술상은 〈대승불교는 어떻게 발전했는가〉(한지연 지음,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보덕전법상은 〈붓다의 수첩·담마〉(성찬 스님 지음, 수류산방)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선에는 〈거룩한 불편〉(유정길 지음, 모과나무), 〈바위에 새긴 미소〉(문영숙 글, 김태현 그림, 현암주니어), 〈일단 앉아볼까요〉(페마 초드론 지음, 한문화), 〈젠더를 넘어서는 불교〉(리타 그로스 지음, 운주사)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25일 오후 4시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대상에 1000만원(출판사·저자 각 500만원), 우수상에 400만원(출판사·저자 각 200만원), 한길번역상은 올해부터 상금이 늘어난 400만원(출판사·저자 각 200만원),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후원하는 붓다북학술상과 보덕학회가 후원하는 보덕전법상은 각 200만원(출판사·저자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올해부터 ‘독자상’을 신설해 불서를 사랑하고 읽고 전하는 일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 및 단체를 선정해 2명에게 각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여수령 기자

2025 세종도서에 불교 관련 15종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세종도서’에 불교 관련 서적 15종이 선정됐다.

교양부문에서는 〈명상맛집〉 〈불교를 알면 삶이 자유롭다〉 〈주역의 눈〉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불교 사용 설명서〉 〈나의 해파리 소년〉(이상 불광출판사), 〈선으로 읽는 도덕경〉(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불교윤리학 입문〉(운주사), 〈나의 스승 일엽 스님〉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음악인류학〉(이상 민족사), 〈조선의 의례용 임산물〉(조계종출판사), 〈바다를 건넌 붓다〉(소명출판)이 선정됐다.

학술서로는 〈혜초의 기행문과 철학〉(소명출판), 〈대승불교는 어떻게 발전했는가〉(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불교철학의 이해〉(씨아이알), 〈한국의 불상: 통일신라편〉(경인문화사)이 이름을 올렸다.

만해, 자비로 세상을 밝히다



만해 한용운 미학의 철학
백원기 지음
운주사
2만2000원

생명존중과 자비실천의 미학 조명 “미학적인 삶은 가장 자기다운 삶” 교육·포교 매진 백원기 교수 유작



한국 근대사의 거대한 지성,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 독립운동가나 시인이라는 프레임만으로는 스님의 사상과 삶을 담아내기 어렵다.

〈만해 한용운 미학의 철학〉은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미학’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해석한 책이다. 저자인 고 백원기 교수〈사진〉는 스님의 불교적 실천과 문학, 그리고 근대적 사유가 어떻게 ‘생명존중과 자비의 미학’으로 통합되는지를 추적한다.

저자는 만해 스님의 삶을 ‘창조적 저항의 미학’으로 해석한다. 스님에게는 모든 존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는 사랑과 평화의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화두였고, 이것이 곧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상실과 아픔을 치유하고자 끝까지 노력한 ‘미학적 삶의 전형’이라는 설명이다.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음과 같고, 평화가 없는 세상은 지옥과 같다”는 스님의 외침은 불교적 자각과 독립운동의 명분을 연결하는 근간이 됐다.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은 ‘미학적인 삶은 가장 자기다운 삶’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이어 초반부에는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살피고, 중반부에서는 〈님의 침묵〉의 문학적 상징 세계를 깊이 파고든다.

만해 스님에게 ‘님’은 조국이자 불성(佛性)이자 진리의 이름이며, 동시에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의 상징이다. 스님의 시 속에서 꽃과 나무, 침묵과 바람은 현실의 고통과 초월적 진리를 동시에 품는다. 저자는 이러한 상징이 불교의 연기론과 화엄 사상, 그리고 서정적 초월의 미학이 만나는 자리임을 보여 준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심우송(尋牛頌)’과 ‘십우도(十牛圖)’에 대한 해석이다. 저자는 만해 스님이 소 찾기의 은유를 통해 자기 탐구와 깨달음의 길을 그리고, 이를 민족 현실의 극복과 연결했다고 본다. ‘심우’는 잃어버린 자아와 민족의 혼을 동시에 되찾는 서사였고, 이 과정에서 만해의 시 세계는 현실을 넘어서 초월의 미학, 즉 ‘무한한 자유의 세계’를 노래한다.

후반부에서는 스리랑카의 불교개혁가 다르마팔라와 만해를 비교함으로써 만해 사상의 국제적 보편성을 탐색한다. 두 사람 모두 식민 현실 속에서 불교를 근대적 사상으로 재해석하고, 민족 해방과 인간 해방의 길을 모색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만해 사상이 인류 보편의 평화와 연대를 지향하는 ‘불교적 미학의 세계화’를 예시했다고 본다.

저자는 “동체대비의 생명존중과 자유와 평등 기반의 깊은 불교적 사유에서 형성된 만해의 삶과 문학작품들은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의 고난을 극복하고 해방된 미래를 지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갈등과 반목, 전쟁 등 오늘날의 불안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인식과 그에 대한 철저한 대응전략과 자기다운 삶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고 의미를 짚었다.

저자인 백원기 교수는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영어 교사를 거쳐 동국대 전산원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했다.

용인불교학생회와 반야회를 창립하고 조계종 국제포교사회장을 맡는 등 포교에도 앞장섰다. 퇴직 후 후학을 지도하다 올해 4월 별세했다. 〈자연 관조와 명상, 시가 되다〉 등 20여 권을 출간했으며 이 책이 고인의 유작이다.

여수령 기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㊷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라



▶한줄 요약
시시비비(是是非非)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복잡한 마음을 만들어 스스로 괴로울 뿐이니,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산같이 물같이 바람과 계절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영원히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다

[오늘의 명상]
꽃피고 잎 져도 계절은 시비 않고
구름 가고 바람 불어도 산은 다투려 하지 않네.
계절도 산도 그러할진대 사람에서랴
온갖 풍상 이고 지고 그저 물끄러미….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평지풍파(平地風波)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용한 평지에 바람을 일으켜 괜한 먼지만 날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의 마음도 본래는 고요하여 나고 죽음도 없고 늘고 병듦도 없으나 생각과 감정의 바람이 일어 스스로 생사(生死)와 고해(苦海)를 만듭니다. 생각과 감정의 바람을 일으켰으니 그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찾으려 더 큰 바람을 일으키며 사는 모습이 우리네 삶입니다.

바람이 일어 먼지가 날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야 날리는 먼지가 가라앉을 것이나, 대개는 기다리지 못하고 더욱 조급해져서 스스로 먼지를 일으켜 괴롭게 만듭니다.

마음은 본래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그저 공(空)하고 적멸(寂滅)하여 형언할 수 없는 불성(佛性)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자유자재한 것입니다.

사바세계의 모습은 복잡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단순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좋은 일 한 번, 안 좋은 일 한 번, 기쁜 일 한 번, 슬픈 일 한 번, 즐거운 일 한 번, 괴로운 일 한 번,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의 모습입니다. 다만 시간과 세월, 전생과 금생, 내생의 삼세(三世)를 통해 달리 나타날 뿐입니다.

각자 개개인의 살아가는 가치가 다르고 사는 모습도 천차만별(千差萬別)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희생 봉사하며 사는 훌륭한 사람도 있고, 악한 행동으로 남을 괴롭히며 사는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일방의 모습들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선은 악에 의해 만들어지고, 악은 선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좋은 사람도 없고, 영원히 나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저 각자의 두 마음,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서로 상대적으로 나타날 뿐이니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이 눈비가 되어 다시 강물과 바닷물이 되고, 또다시 증발하여 구름과 눈비가 되듯 공전(空轉) 윤회(輪廻)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과(因果)의 모습들을 여여한 마음으로 보고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시비비(是是非非)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복잡한 마음을 만들어 스스로 괴로울 뿐이니,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산같이 물같이 바람과 계절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봄을 보고 욕하거나, 여름을 보고 시비를 하거나, 가을을 보고 불만을 가지거나, 겨울을 보고 기분 나빠 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매사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마음을 뺏기지 말지니, 인과를 굳게 믿고, 계절과 같이 산과 같이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줄 아는 여여(如如)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희노애락’ 교차하는 게 사바세계 모습
모든 것은 상대적…선악도 영원치 않아
계절마다 분노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듯
인과 모습들 여여하게 살펴 편안해져야

[오늘의 명상]
밤새 서린 안개비 잎새 끝에 모이어
초롱한 눈물 한 방울 매달고 아침을 맞이하네.
밝은 햇살 닿으니 마술처럼 사라지고
수줍은 듯 오므리는가 하더니 살랑이며 춤을 추네.

마음은 두 가지 형상을 가졌습니다. 이 마음, 그리고 반대의 저 마음입니다.

부자의 마음도 이와 같고, 빈자(貧者)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지위와 자리, 생긴 모습과 상관없이 이 두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불행과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빈자라고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조금 더 갖고 있거나, 조금 더 지위가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인과(因果)에 따른 인연의 모습이 그러할 뿐, 항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높아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막연한 관념에 사로잡혀 기를 쓰고 더 가지려 하고, 죽자 사자 더 높은 지위를 탐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연의 때가 되어 위치와 여건이 조금 더 좋아졌을 뿐이지 마음이 더 편안해지거나 괴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마음은 모든 것을 인과(因果) 인연의 소치로 생각하여 스스로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굳이 구분하여 마음을 동하게 되면 잔잔한 바다에 바람이 불어 파도가 출렁이듯 감정 또한 이와 같아서 스스로 마음에 격랑을 일으키게 되니, 늘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들어서 감정을 격동(激動)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평소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고 들리게 되어 자연의 신비함을 만끽하게 됩니다. 아침의 밝은 햇살에 떠다니는 먼지가 보이듯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게 돼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정확히 관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지에 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도 지혜로운 견해가 생겨날 것이니, 각박한 삶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관조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이를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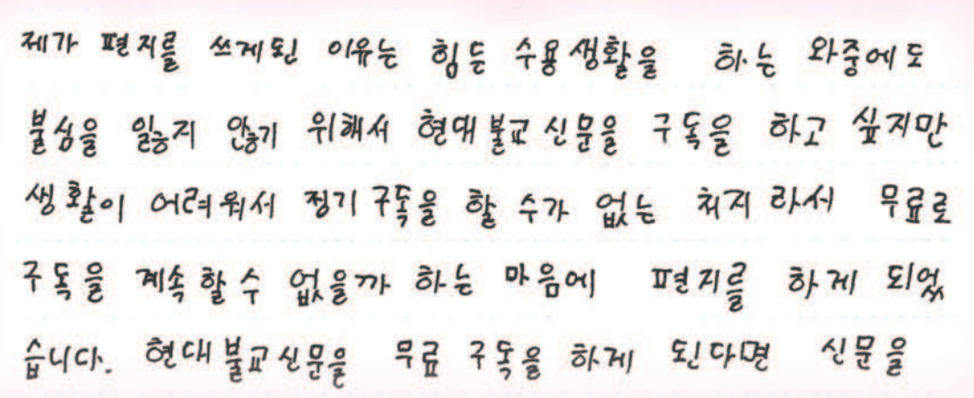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⑰ 천신(天信) 스님

▶한줄 요약
천신 스님은 17세기 중반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의 정점을 이룬 색난 스님의 불상 양식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조각승이다.



17세기 중반 호남 불교조각 주도한 조각승



순천 송광사 영산전 목조석가여래좌상(1662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대전 복전암 목조대세지보살좌상(1669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해남 대흥사 천불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70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인균 스님 계보 잇고 16여 년간 불상 조성
1660년대 수화승 활동, 제자 색난 스님 양성
순천 송광사 · 대전 복전선원 등에 불상 조성

천신(天信) 스님은 17세기 전·중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응원(應元, 應圓) 스님과 인균(印均, 仁均, 印筠) 스님의 제자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17세기 중반 불교조각의 양식 형성에 크게 기여한 작가이다. 스님은 스승인 인균 스님을 보좌하며 사찰과 암자에 다양한 불상을 조성했고 제자인 색난(色難, 色蘭) 스님을 배출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했다.

천신 스님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1654년 11월 화순 모후산 사자암에서 수화승 인균 스님 및 부화승 해익(海益) 스님 등과 함께 목조보살좌상(현재 순천 송광사 부도암 봉안)을 제작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천신 스님은 조각승 네 명 중 세 번째로 기록돼 있어 이 시기에는 비교적 낮은 지위의 보조 조각승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천신 스님은 1655년 12월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목조나한상 조성에 인균·삼인(三忍)·자경(慈敬) 스님 등과 함께 참여했다.

1656년에는 무염 스님, 계훈 스님 등 여러 조각승과 함께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보물) 제작에도 참여했다.

1660년대 들어 천신 스님은 수화승으로 독립해 활발한 조각 활동을 펼쳤다. 1662년 1월 순천 송광사 영산전 목조석가여래좌상을 수화승으로 제작했고, 같은 해 12월 스승 인균 스님과 함께 화순 유마사 목조여래좌상(현재 전주 학소암 봉안)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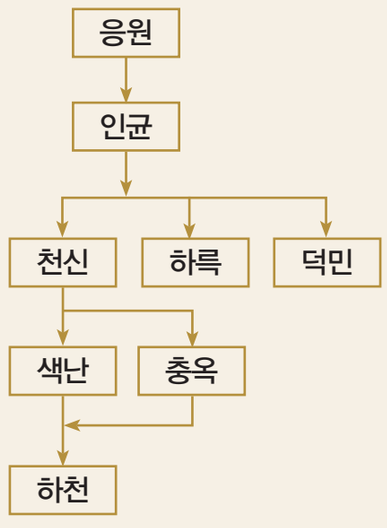
이후 천신 스님은 수화승으로 1668년에는 고흥 금탑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중수했고 1669년 대전 복전선원 목조대세지보살좌상, 1670년 강진 상원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현재 해남 대흥사 천불전 봉안, 도난 후 회수)을 조성했다.

또한 천신 스님은 불화 제작에도 능해 1688년 하동 쌍계사 영산회상도, 1693년 여수 흥국사 영산회상도를 수화승으로 그렸으며, 1694년에는 김제 금산사 제반문(諸般文) 간행에 시주자로 참여했다.

1700년 부안 내소사 괘불도를 수화승으로 조성했고 1707년 고흥 능가사 〈선문염송설화(禪門拈頌說話)〉 간행 때 서사화주(書寫化主)로 활동했다. 특히 이 불서 간행에는 색난 스님도 함께 참여해 두 조각승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보여 준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천신 스님의 활동 시기는 1654년부터 1707년까지로, 반세기 이상에 걸쳐 조각과 회화, 그리고 불서 간행 등 다방면의 불교 예술 활동을 펼친 것으로 파악된다.

천신 스님의 조각승 계보 (필자 작성)



문헌 기록과 현존 유물에 따르면, 천신 스님은 1630년대에 태어나 1650년대에는 인균 스님이 주도한 불상 조성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했다. 1660년대 이후에는 수화승으로 독립적인 불상 조성 활동을 활발히 이어 갔다.

천신 스님은 주로 호남 지역 주요 사찰의 부속 전각인 영산전이나 암자에서 활동했으며 수화승으로서 제작한 불상은 현재 순천 송광사, 대전 복전선원, 해남 대흥사 등에서 확인된다. 천신 스님은 불상뿐만 아니라 불화 제작에도 능숙했으며 나아가 불서 간행 사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천신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응원(1613~1635, 이하 활동 연대)→인균(1614~1662)→천신(1654~1670)·하륵(河勒, 1654~1662)·덕민(德敏, 1659~1662)→색난(1662~1730)·충옥(忠玉, 1668~1705)→하천(夏天, 1703~1730)으로 이어진다.

천신 스님이 주도해 처음으로 만든 불상은 순천 송광사 영산전 목조석가여래좌상이다. 내부에서 발견된 비단에 묵서(墨書)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불상은 1662년 1월 조각승 천신 스님과 덕민 스님이 제작했다.

목조석가여래좌상은 높이 79㎝의 중소형 불상으로, 상반신을 곧게 세우고 머리를 앞으로 살짝 내민 자세를 취하고 있다.

머리에는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肉髻)와 뾰족한 나발(螺髮)이 표현됐고 중앙에는 반원형 중간계주(中間髻珠), 정수리에는 낮은 원통형 정상계주(頂上髻珠)가 있다. 타원형 얼굴에는 살짝 올라간 눈꼬리, 짧고 곧게 뻗은 콧날,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입술이 조화를 이루며 목 아래에는 삼도(三道)가 새겨져 있다.

착의 형식은 대의 자락이 오른쪽 어깨에서 반달형으로 접혀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는 구조를 보인다. 반대편 대의 자락은 어깨에서 수직으로 내려와 맞은편 자락과 U자형으로 교차하며 결가부좌한 다리 위로 넓게 펼쳐진다. 좌우로는 간결한 옷 주름이 드리워지고, 대의 안쪽의 승각기는 수평으로 단순하게 접어 처리됐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으로 촉지인(觸地印)을, 왼손은 다리 위에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 엄지와 중지를 맞댄 형태를 취한다. 수인 형태는 1684년 색난(色難) 스님이 제작한 강진 옥련사 목조여래좌상의 팔목에서 발견된 '석가(釋迦)' 묵서를 통해 조선 후기 석가여래의 전형적 수인으로 규명됐다.

천신 스님이 주도해 제작한 불상은 세 점뿐이지만 온화한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 안정적인 신체 비례, 오른쪽 어깨와 하반신 대의 자락 형태를 통해 스승 인균 스님의 조형 감각을 충실히 계승했다.

또한 천신 스님이 만든 불상의 양식적 특징은 제자인 색난 스님과 충옥 스님에게 전수됐고 이는 다시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하천 스님으로 이어져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했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NEW 신상품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비바미 어싱(접지) 방한 부츠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신발은 자연을 맨발로 걷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1. 비바미 신발은 밑창이 발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체중이 배분되어 발의 압박을 분산,
2.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 피가 하체에 쏠리는 것을 줄여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
3. 이를 통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4. 발바닥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발가락 뼈의 정형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신발의 기능을 제거하여 신발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바미 신발의 특징입니다.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120,000원 ▶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54호 | 15 | 전면광고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된 마음에는 욕망이 스며들
틈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포집
- 요사 : 30평, 산 밑
- 매가 : 8억, 차량진입

- 위치 : 서울
- 면적 : 200평, 사찰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산 밑 차량진입
- 매가 : 25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용암면 계산리 96-2
- 약 1000평부터 5000평까지 분할 매매 가능
- 탁트인 전망, 토목공사 전기 수도 완료 / 가람장소로 적합
- 가액 : 평당 60만원(절충가능)

010-8857-98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장소 : 여주시 점동면 산사
- 대지 : 703평
- 대웅전, 진신사리 3층석탑,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종무소
- 상수도, 지하수, 전기 (태양광 포함 13K)
- 양도가액 : 6억원

010-5481-2560

포교당 안내

전월세입자 구함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60 4층
- 면적 : 4층 45평, 총 90평 전체 사용 가능
- 대웅전 약 30평, 공양간, 종무소
- 요사채 별도 존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전세금 천만원/월세 60만원(절충가능)
- 집기 일체 3천만원(절충가능)
- 4층 전세 사용 함

010-4179-621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 IC 15분거리
- 대지 : 367평
  건물 연면적 : 160.36㎡
  법당, 주지 스님 처소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3억5천만원(협의가능)

010-5046-5788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가액 5억 3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6898-9114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8000만원

010-5804-5100

사찰(급)안내

- 신축 빌라식 3층 건물
- 각층 임대 및 매매 가능
- 위치 : 부산시 구포시장 농협 옆
- 1층 근린법당 약 50여 평
  5000만 월 70만
- 2층 주택 법당 5000 월60만
- 3층 주택 방3칸 5000 월50만

※3층 복층 사용 가능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산 130-7번지
- 총토지면적 : 546평
  *대지199평, 건평25평1동(1억 2천)
  *임야 247평(산지전용 토목공사 완료, 5천), 도로 약 100평
- 총가액 : 1억 7천만원(일부 조정 가능)

010-8833-6949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치악산 산하
- 부지 1330평
- 대웅전(60평), 요사채(40평), 황토방(10평)
- 상수도, 지하수, 전기(태양광 포함 15k)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8억 8천만원

010-6372-8968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49번지(석교동) 광명선원
- 3층 건물 중 2층 33평
- 보증금 500만원/월세 35만원
- ☆ 렌탈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터넷.cctv, 비데, 전화, 체크기 등 이전 ☆

광명선원 043-224~2474
010-3222-2474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도심 최고 중심사찰부지 안내

지금의 사찰은 도심의 최고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 대구시민 240만 인구의 최고 중심
- 지하철 1호선, 3호선 더블역세권
- 불교5대종단 內 소유 종교용지(나대지)
-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도심속의 명당
- 종교용지 490㎡, 추가 130㎡ 매입가능
- 매매가격 : ㎡당 350만원(협의가능)

053-745-9999,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
- 평수 : 1860평
- 법당 : 25평 산신각 : 8평
- 요사채 : 45평, 28평

※태양광, 저온창고, 화장실 3개

- 가격 문의 바람

010-5635-9499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 3층 건물 중 3층 위치, 약 60평
- 대법당, 소법당, 모임실, 공양간 등
- 창고, 남녀 화장실, 10평 테라스
- 프로젝터, 방송장치 등 구비 (강의 진행 바로 가능)
- 월세 : 100만원 • 보증금 : 2000만원
- 시설 권리금 : 협의

010-3269-9847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장소 : 안동시 와룡면 라소리
- 야산 5426평
- 수익성 : 염소, 닭, 포고버섯 구지뽕, 열매나무, 더덕 토종꿀, 명당묘터 절 길 있음
- 급매매 9300만원

직 010-3521-54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
- 대지 : 1000평, 건물 : 60평(건축6년)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베란다 40평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 조경, CCTV 완비
- 주차장 500평(하천부지),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부득이 정리,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광고 접수 번호 안내

02-2004-8204

010-4648-820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생활안내

1554호 | 16 | 전면광고

맷돌이나 숫돌이 깎이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땐가 다 닳아 없어지고, 나무를 심으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크게 자란다.



부처님 말씀 읽기 -《선림보훈》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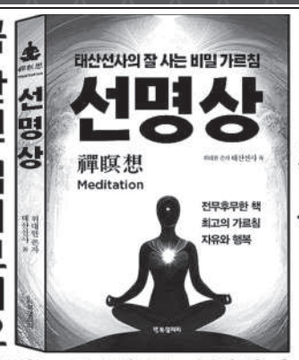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희귀병 상담

•수행이 잘 안되시는 분
•무엇인가 알면서도 해결 못하시는 분
•매일같이 몸이 아프신 분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으신 분
합천군 가야면 죽전길 132-1 법정사 해산스님
010-7321-0404

• 한국전통무용(춤) • 전 통 민 화(그림)
자 격 증
1급~2급 지도강사
- 간단한 절차로 취득 기회 -
대한민국장인포럼
서울시 중구 수표로 22 아세아빌딩602호
상담 010-3007-1183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해썹(HACCP) 인 증 업 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국제결혼 무료로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공양주 구합니다
65세이상
한달 시주금 문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 26번지4
010-6333-1488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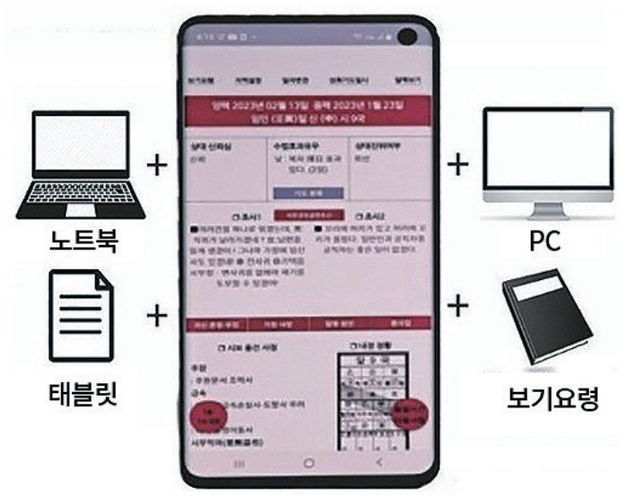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㉑ 만해광장과 밀실

광장서 무연대비심의 보살행을 보다

동국대학교 만해동산에서는 서울의 북쪽 북한산을 기준으로 서쪽으로는 명동과 종로 일대가 훤히 보이고 동쪽으로는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용마산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시선을 아래로 돌리면 오늘 산책할 만해광장이 나온다.

만해광장은 남산 중턱에 자리 잡은 동국대의 몇 안 되는 평평한 공간이다. 또 다른 평지로는 이미 둘러본 팔정도와 정각원에서 내려다보이는 대운동장이 있다.

만해광장 초입에는 베트남 고승 틱낫한 스님의 동국대 방문 기념 표지석이 있다. 틱낫한 스님은 여러 베스트셀러 불서로도 익숙하지만, 만해 한용운 스님처럼 베트남에서 불교가 어떻게 현실 참여를 해야 할지 고민한 인물이란 점에서 만해광장과 공명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광장 안쪽 깊숙한 곳에는 동우탑이 있다. 동우탑에는 4·19혁명 때 유명을 달리한 노희두 열사와 동국대 출신의 여러 의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산책 코스와는 다소 벗어나지만 만해광장에서 샛길로 내려가면 세월호 사건 때 학생들을 먼저 구하다 자신을 희생한 최혜정 동문을 기리는 표지석도 나타난다.

노희두는 필자보다 어릴 때 자기 자신을 사회에 던졌고 최혜정 또한 필자와 학번이 같은데도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 나라는 소인 입장에서 광장 위 그들의 숭고미를 생각해 보게 된다.

만해라는 시인의 바탕에서 광장 위라는 사유를 하게 됐으니 최인훈이란 문인 '광장'으로 산책 장소를 옮겨 볼까 한다. 만해동산에 새겨진 '님의 침묵'이 만해 스님의 대표작이듯 〈광장〉은 최인훈의 대표작이다. 〈광장〉은 10번의 개정판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인훈에게는 이 소설이 내려놓지 못한 평생의 화두였던 듯하다.

〈광장〉은 일제 말 해방 초 지식인 이명준의 고뇌를 그린 소설이다. 그는 좌익 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한다. 신탁통치를 넘어 남과 북에 각자의 정부가 생기자 좌익과 관련 있는 이명준은 남쪽에 계속 머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상실에 환멸을 느껴 월북한다.

하지만 월북한 사회에서 좌익 운동가인 아버지의 삶은 조선 말기 부르주아지의 모습 그 자체였으며, 개인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주의 북한에 이명준은 질식해 간다. 여기서 만난 은혜와의 사랑만이 남한이란 광장, 북한이란 광장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던 명준이 도망칠 유일한 밀실이었다.


만해동산서 내려본 만해광장.

남산 중턱 자리 잡은 평평한 공간서
최인훈 '광장' 인간·보살 사유케 해
보살, 밀실 포기·타자 위해 살아가

그리고 한국전쟁이 벌어져 명준과 은혜 모두 참전하게 되고 여기서 명준은 은혜를 포탄에 잃게 된다. 그리고서 그는 포로가 돼 남한이냐 북한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제3세계를 선택해 인도로 가는 배에 몸을 싣는다. 하지만 자신이 설 광장이 없음을 안 명준은 생애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된다.

이 〈광장〉이 독일에서 출판될 때, 독일에는 동일 제목의 작품이 출간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어 '광장' 제목을 '광장과 밀실'로 바꾸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원작자인 최인훈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광장과 밀실'이란 제목은 작품을 너무 풀어 설명해 긴장감은 잃지만 또 이 소설 내용을 이보다 더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제목도 없는 듯하다.

인간에게는 사회적 동물로서 활동할 '광장'이 필요하다. 반면 남과는 공유되지 않는 자신만의 개성이 보존되는 공간인 '밀실'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광장'과 '밀실'의 관계가 이념의 전쟁 한복판에서 무너져 내렸을 때 인간이 어떻게 인간으로 있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광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나'라는 에고(ego)의 기본적 욕망 중 하나가 인정욕이다.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위해 공공의 기준에 맞춰 사회적 가면을 쓰고 광장 위에서 연기를 한다.

하지만 내 안의 욕망은 공공의 광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차라리 욕정이라 할 만한 동물적 욕망에 대해 답답한 가면을 벗고 숨 쉬게 할 밀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욕망은 방목하는 짐승과도 같다. 때로는 풀을 뜯게 내버려 둬야 하고, 때로는 사육장에 가둬야 한다. 인간이든 짐승이든 욕망을 드러낼 광장, 욕망을 풀어낼 밀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생이다.

중생임을 포기하고 살아감이 바로 보살의 삶이다. 보살에게는 광장밖에 없다. 그는 밀실을 포기한 존재이다. 생존 욕구, 번식 욕구, 혹은 그 외에 공공에 드러내기 꺼림칙한 욕망 모두를 포기하고 오로지 타자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보살이다.

보살이야말로 아무런 이해도, 의도도 없다. 그들은 그저 타자를 위해서만 모든 활동이 이뤄진다. 이런 의미에서 보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도를 이루는 데 있어 지혜를 성취하고 그 힘으로 타인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보이지만,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당사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인용하는 근거나 경전상의 증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가장 가까운 예인 석가모니 부처님만 봐도 그렇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보살로서 수기를 받은 것은 연등불이 나타난 시절 선혜 동자였을 때다. 이 선혜동자 때 연등불에게 앞으로 91겁 뒤 석가모니불이란 부처님이 되어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수기를 받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런데 그는 이미 선혜 동자이기 이전에 삼아승지겁의 보살행을 닦은 이다. 선혜 동자를 기점으로 할 때, 그 이전의 보살행에는 '보살행을 닦아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그저 중생을 향한 이타심에 따라 우주 전체에서 겨자씨 한 톨만한 곳도 예외 없이 중생들을 위해 앞서 본 광장 위의 의인들처럼 몸을 버렸다.

그 희생을 인정받아 그는 붓다가 될 것이라고 인정(수기)받게 된다. 선혜 동자에게는 붓다를 이뤄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이 삼아승지겁 동안 없었던 것이다.

불교란 종교는 인과의 종교다. 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보살행의 무연대비심과 깨달음의 이계과, 이 두 가지만은 불교의 철리라 하더라도 인과로는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교는 이해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이해를 넘어서는 절대적 타자성이 필요하다. 밀실을 포기하고 광장 위에서만 살아가는 무연대비심의 보살행은 부처님을 절대적 타자로 믿게 하는 숭고미 그 자체이다.

〈동국대 박사〉

악업 짓더라도 참회하고 부끄러워 해야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㊷ 의지함이 있는 행(유의행품有依行品)

금강장보살의 발문(金剛將菩薩의 發問)

그때 금강장보살마하살이 대중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합장 공경하며 게송으로 사뢰었다. "그 옛날 말씀하시길 계율을 깨뜨리고 덕을 잃으면 성현의 그릇이 아니며 내 제자가 아니어서 모든 사문의 법을 재처럼 버리나니, 청정한 나의 무리 속에 있을 수 없다 하시고 탐·진·치로 더러워져 바른 도를 잃어 버린 그는 공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스님에게 보시하는 물건을 받는 것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며, 네 가지 근본 죄 중 하나만 범해도 바다에 떠도는 송장과 같이 청정한 대중의 버림을 받는다고! 그런데 어찌 지금은 악한 비구라도 참고 사랑하여 벌주지 말라고 하십니까? …

또 육통으로 세상을 구하는 것을 다른 경전에서 말했나니 마땅히 대승의 정직하고 미묘한 보리도를 믿어야 하고, 이승의 해탈길을 버려야 한다고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삼승을 말씀하시어 두루 듣고 받아 지니고 공양하라고 권하되, 오근·오력·칠각지·팔정도·사문과(沙門果)는 이 경에만 있고 다른 경에는 없다고 하십니까?

또 여덟 가지 거룩한 도는 짝할 이 없어 삼승이 함께 이 도를 행하고 해탈을 위해 정진하여, 각기 그 소원 따라 보리를 증득하라 하십니까? 유정 중에서 가장 높으신 이여, 밝게 살피시고 예전과 지금 말씀이 어긋남 없게 회통하시어 하늘, 사람, 보살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기뻐하면서 진실을 증득하게 하시옵소서. 대승의 말씀 듣고 누가 유익하며 누가 손해이오며 열 가지 해탈[십종해탈성문승十種解脫聲聞乘]의 성문승 설하는 것을 듣고, 누가 손해며 누가 이익입니까? 어떤 사람이 법을 듣고 더욱 향상하며 어떤 사람이 법을 듣고 도리어 퇴보하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유위(有爲)를 싫어하여 늙고 죽음을 없앨 수 있겠나이까? 밤낮으로 온갖 선(善)을 닦는 사람은 어떤 이치를 의지하고 어떤 수레를 타야 넓고 깊은 네 갈래 사나운 번뇌의 흐름을 잘 건너겠나이까? 이 세상 구제하기 위하여 모두 말씀해 주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금강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그대는 지금 무량한 유정들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고 저 하늘, 사람, 아수라 등을 위해서 큰 뜻을 짓고자 여래에게 그런 깊은 뜻을 묻는구나. 그대는 자세히 듣고 잘 명심하여라. 내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금강장보살이 사뢰었다. "예, 세존이시어 즐겨 듣고자 하나이다."

열 가지 사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십종의 사람이 있는데 생사를 윤회하면서도 사람 몸을 받기가 어려우니라. 그 십종이란 어떤 것인가? ①선근을 심지 않는 것 ②복업을 닦지 않는 것 ③잡되고 더러움을 상속하는 것 ④나쁜 벗의 행을 따르는 것 ⑤후세의 고의 과보를 돌아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⑥사나운 탐욕 ⑦사나운 분노 ⑧어리석음 ⑨마음이 미혹하며 어지러운 것 ⑩나쁘고 삿된 견해를 고집하는 것 등이다."

위에서는 열 가지의 사람 몸 받기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하고 아래에서는 나쁜 세계에 떨어지는 10가지의 의지해서는 안 되는 행[무의행無依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 무의행

"열 가지의 무의행의 인(因)은 중생들로 하여금 근본 죄를 범하게 하고, 계율을 헐뜯고 범하게 하여 나쁜 세계에 떨어지게 하느니라.

그 열 가지는 어떤 것인가? 내 법안에서 출가한 이로서 ①수행은 깨뜨리나 뜻은 깨뜨리지 않는 자 ②뜻은 깨뜨리나 수행은 깨뜨리지 않는 자 ③수행과 뜻을 모두 깨뜨리는 자 ④계율은 깨뜨리나 지견(知見)은 깨뜨리지 않는 자 ⑤지견은 깨뜨리나 계율은 깨뜨리지 않는 자 ⑥계율과 지견 모두를 깨뜨리는 자 ⑦수행과 뜻과 계율과 지견을 모두 깨뜨리지는 않으나 나쁜 벗의 힘과 행에 의지하여 무의행을 짓는 자 ⑧비록 좋은 벗의 힘과 행을 의지하지만 우둔하기가 아양(啞羊, 지극히 어리석음)처럼 모든 일을 분별하지 못하여 선과 악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⑨재보와 필수품에 대하여 만족 못 하며 그것을 구하는 인연으로 무의행을 짓는 자 ⑩갖가지 병 때문에 고통을 받자마자 사당의 제사와 주술(呪術)을 구하나니 이런 인연으로 무의행을 짓는 자이다.

이러한 10종 무의행의 인은 중생들로 하여금 근본 죄를 범하게 하여 현재 법 중에서 성현의 그릇이 아니게 하고, 계율을 헐뜯고 범하게 해서 온갖 나쁜 세계에 떨어지게 하느니라. 선남자야, 혹자가 수행은 깨뜨려도 뜻을 깨뜨리지 않고 근본 죄를 범하였더라도 곧 깊이 뉘우치고 거듭 악행을 짓지 않으면, 여래는 그를 도를 더럽히는 사문이 있다고 설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는 중한 악업을 짓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부끄러워하고 참회하나니, 이렇게 참회하므로 죄가 소멸되어 이어짐이 끊기고 다시는 짓지 않기 때문이다."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 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㉑ 입동_봉은사 길을 걷다



▶한줄 요약
24절기 중 19번째 절기. 겨울의 첫 관문인 입동은 새봄을 맞기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기이다.

새봄 위해 생명 품는 겨울의 서막

펄럭이는 깃발들 너머로 보이는 것은 장엄한 새 세상의 모습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불보살과 천신들이 부처님의 곁을 호위하고 삼계의 독경 소리가 노래처럼 울려 퍼지는 곳.

영원히 지지 않는 꽃들의 향기 가득하고 결코 춥지도 않고, 배고픔도 없는 그런 세상. 그 안에 들어설 방법은 오직 지난날 내가 쌓은 자비와 선업(善業)만이 말해 줄 것이다.

지금은 차가운 계절. 모진 바람 몰아치는 이 세계를 바꿀 방법은 오직 하나, 그뿐이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서울 봉은사 생전예수재. 경내를 가득 메운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깃발을 들고 49일간 설행된 예수재 회향 의식을 하고 있다.



봉은사 사천왕문 앞을 지키는 보시함.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행이 절실한 계절이다.



봉은사 미륵대불이 삼성동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봉은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봉은사 생전예수재 회향 의식을 사진에 담고 있다.

겨울이 일어선다

입동(立冬). 마침내 겨울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24절기 중 19번째 절기이자, 겨울의 첫 관문인 입동. 여름과 겨울. 연중 가장 극단에 서 있는 두 계절의 차이점은 크게 음양의 기운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염없이 상승하는 불의 기운을 지닌 여름. 폭발하듯 피어나는 그 에너지는 깊이 잠들어 있던 뭇 생명의 잠을 깨우고 생장을 재촉하는 생명의 기운이다. 반면 겨울은 나날이 짙어지는 냉기와 함께 움츠러들고 생장 반응이 느려지며 마침내 모든 활동이 멈추어 버리는 음의 세계인 것이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국립민속박물관 편찬)에 의하면, 입동 즈음에는 '동면하는 동물들이 땅속에 굴을 파고 숨으며 산야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풀들은 말라 간다'고 전해진다. 또 중국 전한 시대의 회남왕 안(安)이 편찬한 〈회남자(淮南子)〉에서는 "추분(秋分)이 지나고 46일 후면 입동(立冬)인데 초목이 다 죽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자연이 순행하며 벌어지는 결과일 뿐, 겨울을 마냥 죽음의 계절로 낙인찍는 것은 큰 실수다. 겨울의 폭설은 겨우내 땅의 수분을 유지해 주고 낙엽이 지는 것은 나무들이 겨울 동안 영양 소모를 최소로 하기 위한 생명의 본능.

그렇게 움츠렸던 자연도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입춘이 오면 다시 잠들었던 몸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새봄이 오기까지 겨울이 모든 생명에게 냉혹한 시간임은 변함이 없다. '겨울이 일어선다'는 뜻은 곧 길고 긴 고난의 시기를 예고하는 것이니까.

겨울과 함께 살아가는 법

거대한 설인(雪人)처럼 일어서는 이 계절에 맞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집안의 냉기를 막고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 또 가장 중요한 겨울 채비인 김장 준비로 전국이 떠들썩해지는 것 또한 이 무렵 풍경이다. 두꺼운 겨울 옷가지와 신발을 꺼내고 독감 예방을 위한 노력도 마찬가지.

하지만 진짜 월동 준비는 그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이루어질 터다. 자비, 연민, 보시, 공존. 이 모든 좋은 것의 이름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도 농촌에서는 입동 무렵 크고 작은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햅쌀로 떡을 하고, 먹을거리를 모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동제를 지내는 것. 또 곳간과 부엌, 마루, 특히 외양간에서 소를 향해 고사를 올리던 전통이다.

설령 고사를 지내진 못하더라도 겨울이 오기 전까지 소들이 좋아하는 풀을 가득 베어 먹이고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는 것은 흔한 풍경이었다. 비록 짐승일지라도 함께 살아가는 뭇 생명에게 감사하는 의식은 우리 민족에게 익숙하고, 또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던 셈이다.

우리네 옛 어른들은 감나무의 감을 거두며 남김없이 모두 따 버리는 것을 인정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나무랐다. 겨울철 먹을 것이 줄어 배곯을 새들을 위해 일부러 좋은 감을 따지 않고 두었던 '까치밥'. 땅이 없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벼를 일부 베지 않고 남겨 두거나, 추수한 뒤에도 그들이 주워 갈 이삭을 남겨 두는 '이삭줍기'. 아무리 가난한 시절에도 입동이 되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마을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건강을 기원했던 '치계미(雉鷄米: 꿩, 닭, 쌀) 잔치'.

유난하지 않은 그 이름에, 무심하도록 일상적인 공동의 원칙 속에 우리네 진짜 겨울의 풍경이 담겨 있다.

봉은사 생전예수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봉은사역에 내려 조금만 걷다 보면 천년고찰 봉은사의 모습을 마주한다. 무역센터와 공항터미널, 대형 호텔과 테헤란로를 가득 메운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선 땅. 너무나 도시적인 그 풍경 속에 봉은사는 마치 또 다른 세상처럼 유유히 그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말, 봉은사 도량은 온통 형형색색의 깃발과 번으로 장식돼 펄럭였다. 거대한 반야용선이 극락정토를 향해 떠나는 때가 바로 이런 모습일까.

이날은 봉은사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의 회향일.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생전에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한국불교만의 전통의식이다. 이번 생전예수재에는 일주문에서 법왕루까지 길게 뻗어 있는 오방번을 중심으로 모두 3100여 개의 번, 2000송이의 지화가 장식됐다고.

현생의 삶에서 지은 무수한 과보(果報)를 참회하고 복을 미리 일궈 사후의 자신을 구원하는 것. 하여 죽은 자를 위한 것과 같이 49일간 재를 지내며 기도의식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 정성껏 장엄한 이 도량이 반야용선의 모습과 같으리라 여겨도 이상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현생의 죄를 미리 닦는 생전예수재. 얼핏 중세 교회의 면죄부를 떠올리게도 하지만, 예수재의 참뜻은 도리어 정반대의 길을 제시한다.

예수재는 과거의 생과 현생, 다음 생에 거쳐 수행을 멈추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약속의 의식이다. 내 안의 불성을 닦아 깨달음을 얻고 끝내 뭇 생명을 향해 회향하는 삶. 모든 불제자의 꿈인 그것은 돈으로 살 수도, 누군가 대신해 줄 수도 없다. 그러니 살아 있는 이들은 죽음 너머의 나를 빌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맑히겠노라, 다짐하는 것이다.

성스러운 약속으로

조선 시대와 현대 한국불교 의례를 집대성한 대표적인 의례집으로 평가받는 안진호 스님의 〈석문의범(釋門儀範)〉.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진다.

"예수코자(예수제를 행하고자) 하거든 방생부터 먼저 하라. 세상 사람이 매양 중을 청해서 불사(佛事)를 작(作)하야 미리 닦는 것은, 진실로 죽은 뒤에는 육도(六途)에 윤회함에 업식(業識)이 망망(茫茫)할지라. (중략) 대저 세간(世間) 자선(慈善)은 방생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내가 자비지심(慈悲之心)으로 방생하야 불·보살의 자비지덕(慈悲之德)에 감동되면 반드시 불·보살의 복을 입을 것이니라."

이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자비행을 실천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다. 오직 그것만이 더 나은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지난 2012년 러시아 툰드라 지역에서 '실레네 스테노필라'라고 불리는 시베리아 토종 꽃씨앗들이 발견됐다. 무려 3만2000년이나 얼어붙어 잠들었던 씨앗. 영겁과 다름없는 시간을 얼어 있었지만, 학자들은 그 꽃씨에 생명이 머물러 있음을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작고 사랑스러운 백색 꽃들로 피어나 온 세상에 3만2000년 전의 봄날을 보여 준 것이다. 결코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성스러운 약속. 선근(善根)이란 아마도 그와 같으리라.

휘날리는 깃발 저 너머 세상이 아득해진다. 저 아름답고도 아득한 세계에 끝내 도달하는 방법은 함께 맞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 오직 자비행으로 이 차가운 계절을 이겨 내는 것뿐이다.

〈작가〉

불교박람회를 핫하게 만든 맷돌커피
맷돌의 미학 커피의 철학
밀스톤 맷돌 커피 그라인더
Millstone
수동 압착식 원두 분쇄, 고흥석·오석이 빚어낸 원형의 미학과 기능성
고흥석
오석
정가 1,800,000 ⇒ 할인가 1,400,000
특판 보급가
정가 2,000,000 ⇒ 할인가 1,600,000
● 고흥석 원석 : 약 13.1kg
● 오 석 원석 : 약 14.1kg
● 크기 : 헤드 지름 16cm×받침 지름 26cm×높이 27cm
● 수동 회전 압착 분쇄 방식
● 반영구적 내구성 - 최고급 수공예품
● 국내 기술 특허 및 국제 기술 특허 등록
핸드드립 애호가와 홈카페 유저를 위한
'한 잔의 철학'을 담은 맷돌 그라인더
패키지 구성품
맷돌 본체, 커피 수납용 컵, 전용 브러시, 맷돌 손잡이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일거수일투족 그놈이 하는 것이니 오로지 한군데다 몰락 놓으라

믿고 놓는다 함은

질문 관법 공부에 이제 인연이 되었는데 믿고 놓는다 함은 무엇을 어떻게 믿고 놓아야 하는지요.

답변 처음에 여러분한테 "자기 주처에 몰락 다 놓아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다구요. 내가 없다면 상대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열 번, 스무 번, 백 번을 해도 그게 감지가 안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하고 되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론돼야 하는 게 어떤 것을 믿고 놓아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이게 어디서 온 건가. 이게 뭣고.' 한다면 벌써 늦습니다. 길을 가기가 늦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무조건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게 없다면, 자기 불성이 없다면 움죽거릴 수도 없고 형성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불종자가 없다면 어떻게 형성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바로 나에게 주처가 있고 그 주처가, 바로 내 불성이 나에게 있다는 걸 믿어야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놈이 하고 다니니까요. 그게 바로 선장이거든요. 여러분의 몸은 바로 그 선장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기초가 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거수일투족 그놈이 하는 거니까 오로지 한군데다 몰락 놔야죠. 그놈한테다 놓는 그 작업이 오로지라야 됩니다. 또,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나가 있는 줄 알게 될 때, 몰락 놓아서 알게 되는 그때에,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또 온갖 집착과 모든 거를 놓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나를 찾는 한편, 그 나를 찾는 과정 속에서 욕심과 집착, 그런 건 다 놓고 가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따로 하고 저것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다면 '아하, 참 여여하구나.' 하는 걸 편안하게 알게 됩니다. 깨치고 안 깨치고 그걸 떠나서 말입니다. '참 편안하게 살겠구나. 생각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이냐, 생각 아닌 한생각이냐 그게 차이점이겠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으니까 양면을 다 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양면을 다 놓게 되면 '아, 이게 모두 내 마음에 달려 있고 내가 모두 갖추어 가지고 있구나. 이 세상 만사 살아나가는 게 내가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기에 갖추어 가지고 있구나. 이미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도 갖추어져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스스로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하는 게 편안하고 여여하게 들여지고 내지는구나.'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나가면서 생활 속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다 놓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편안하게 들이고 낼 수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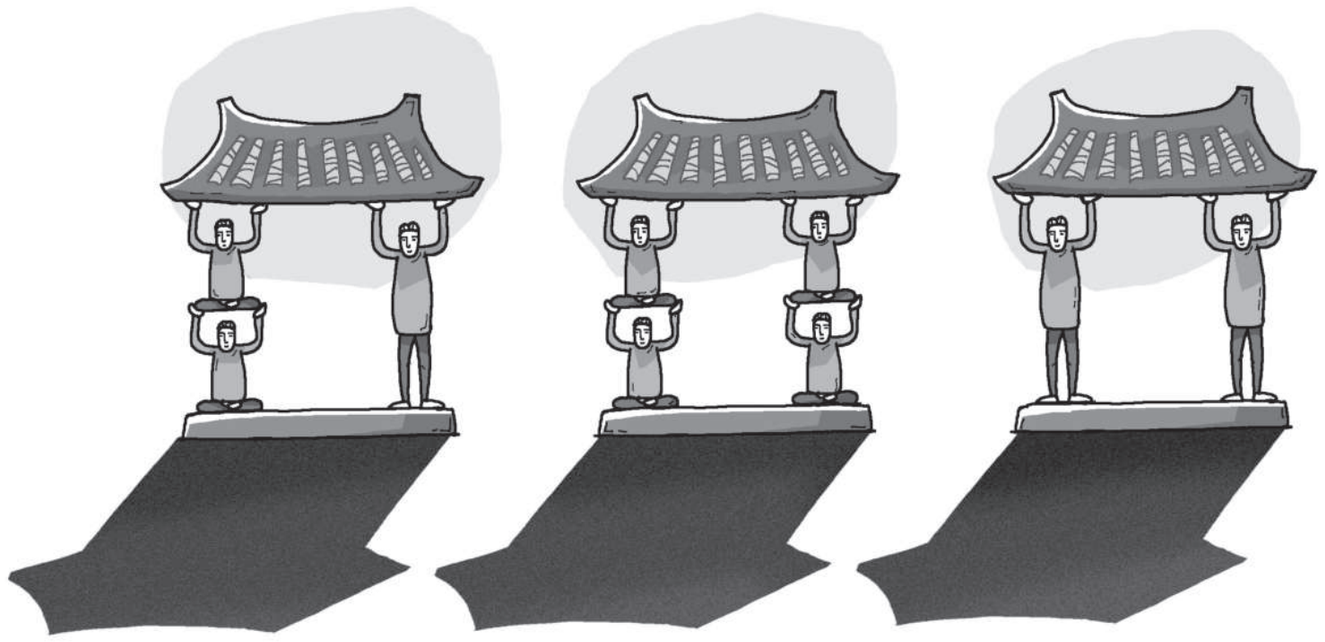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눈도 한 번 깜박거리지 않고 떳떳하고 여여하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지 않을 때는 떳떳하고, 다가올 때는 바둥바둥 애를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것을 대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하고 다 놓아야 한다 이 소립니다.

인생의 고비가 생길 때

질문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고비를 만나게 되는데, 요즘 저는 경제적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데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여러분 앞에 다 주어져 있으니 주저 마시고 어떠한 분야에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 실험을 해 보세요. 비리비리 그냥 남한테나 기대고 그냥 남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죽든지 살든지 좀 결단성이 있어야죠. 그러지 않고서야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려고 그러십니까. 그 고비를 넘기려면 이 세상 끝 간 데 없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생기겠습니까. 고생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사는 게 고생이에요, 알고 보면. "그럼 살지 말라는 얘기죠?" 이럴 테죠. 살더라도 맛을 알고 사시라 이거죠. 이 세상은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고정됨이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만남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먹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나 보세요. 그런데도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다 보니까 인제 지쳐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저놈으로 인해서 망했지. 저놈이 잘못해서 뭘 어떻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면 꼭 꿈대로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네 기와집 양쪽 대들보가 그냥 무너져서 내렸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이건 껌뻑 죽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건 큰일이 났죠, 뭐. 그래서 내가 "허, 모든 업보가 모두 부서져서 내리는구나. 모든 업보가 부서져서 내리니까 너희는 좋은 일 있겠다." 그러니까 날 똑바로 쳐다보는데, 어이가 없죠, 인제. 날 봐도 눈초리만 나한테 있지, 지금 초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이다. 너희 좋은 대로 생각해서 거기 놓는 거지, 사람이 사량으로 '이건 절대로 못 한다, 이거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못 한다.' 이렇게 결정 짓지 마라. 할 거든지 못할 거든지 나쁜 거든지 좋게 생각해서 감사하게 놓고, 또 잘되는 거는 잘되는 대로 감사하게 놓고, 자기 주인한테 모든 거를 다 맡겨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한 생각을 잘함으로써 이 세상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한 생각 잘못해서 창살 없는 구멍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모 빚도 못 갚고 은혜도 갚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들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렵니까? 여직껏 물 주고 공기 주고…. 야, 흙에서 살고, 바람 주고 불 주고 다 한 거, 그 은혜는 또 어떻게 갚아요? 그건 돈 안 받고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좋다고 하시겠지만 그게 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넉넉하게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집이 헐어지면 집주인이 고쳐야지 왜 집이 걱정을 합니까!

☞ 19면에서 계속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자력과 통신력, 광력, 전력 그런 것이 다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믿고 실천을 하는 데에 멋진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멋지다는 건 묘법이라는 뜻입니다. 묘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법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뭐, 불가사의하다 이러고 아주 위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안 해 보셔서 들어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모두들 그런 거죠.

나는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장면 한 그릇을 못 먹어 봤다면…, 왜 손으로 자장면 만드는 거 있죠? 예전에 자장면 한 그릇 먹어 본 지가 한참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수로다가 해서 그걸 하니 무슨 맛이 나요? 그러니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그 자장면 참 맛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 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다면 생각이 납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법문하는 거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들으심으로써 이 속의 업식들이 전부 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듣는 순간, 이 수십억의 의식들이 들어요. 듣는 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세요.

몸의 고통이 힘들어요

질문 저는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 몸의 고통을 마음 도리에 의지해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쉽게 놔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는지요.

답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콩 싹은 콩씨를 믿고, 예를 들어서 댁의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이 전체 살고 있는데 댁은 그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관리인이며, 즉 말하자면 집합소밖에는 될 수 없죠. 그런데 항상 내가 산다고 하니까 거기서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한마음이 돼야 이게 작용을 해 줄 텐데 한마음이 돼 주지 않는다면 대뇌로 통신이 되질 않아요. 대뇌에 통신이 돼야 중뇌에서 책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마음법이 대승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큰마음을 가진 사람의 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한계가 따로 없어요. 우주가 한계가 있다, 삼천대천세계가 한계가 있다 이런 것도 없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소리조차도 붙일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지금 마음을 그렇게 넓게 쓰면서, 나쁜 게 들어왔을 때는 '나쁜 게 들어오게 한 것도 너니까 좋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거기 놓아라. 또 잘돼서 들어오는 건 '아, 참 감사하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거기 놓아라. 그래야 컴퓨터에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면서 새로이 자꾸 나온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이 뿌리라면 싹은 몸입니다. 이 싹은 이 뿌리로 인해서 전체가 삽니다. 그런데 뿌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분이나 수분이나 철분 모두를 갖다 흡수해서 에너지를 올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이 몸 자체는 바로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또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 몸에 정맥과 동맥이 서로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뿌리를 믿어서 '뿌리야, 너 요만큼 에너지를 흡수할 거를 이만큼 좀 흡수해서 올려보내 다오.' 하는 거나 진배없는 겁니다. 용도를 너무 잘 아니까 말입니다. 싹이 생각하는 거를 뿌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몸뚱이 하나가 턱 쓰러졌다 이런다면 그냥 발광을 합니다. 침착하게 '네가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 살리는 것도 너, 죽이는 것도 너다. 죽을 때가 됐으면 애나 어른이나 다 죽는 거지마는, 죽게 하는 것도 너고 살게 하는 것도 너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죽는 거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한데 그냥, 그 빈 손과 빈 발이 그냥, 송두리째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온몸의 모든 의식들을 작용케 해서 낫게 할 텐데, 이거는 뭐, 금방 '아이고, 주인공!' 이랬다가 금방 '아이구, 이거 어떡하나?' 저 누구 부르고 누구 찾고 허,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있다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한테 가서 청하지 않고 일이 됩니까? 청하지 않고도 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잘못됨과 잘됨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일이 됩니까? 밥을 짓지 않고 생쌀로 놓아두면 그냥 밥이 됩니까?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넣고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그냥 밥통은 지키고만 있는 거죠, 그냥. 그거와 같습니다. 변호사는 건수가 와야 할 텐데, 건수가 안 오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거와 같아요. 생각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송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집착만 하지 마시고 전체 주인공에, 말하자면 전체 주인공의 일이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댁의 몸뚱이 한 덩어리에 생명체들이 헤아릴 수 없이 산다면 한 덩어리가 한마음으로 살고 있는 어떤 한 개체지 혼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좀 마음을 넉넉히 써서 '네가 끌고 가는 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좀 맡겨 봐요. 그리고 죽는다 산다를 떠나 봐요, 좀. 네? 죽이든지 살리든지 제가 끌고 가는 거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제삼자인 내가 그렇게 애씁니까? 아, 생각해 봐요, 글쎄. 자기가 형성시켜서 자기가 끌고 가는 집이 헐어졌으면 집주인이 고쳐야지, 왜 집이 걱정을 해야 합니까? 이 집이 헐어졌으면 이 집 지은 사람이 고쳐야지, 왜 이 집이 걱정을 해야 합니까? 안 그래요?

> 지금 우리 인생살이가 살얼음판을 딛고 가는 형국인데,
> 이 모든 거를 주인공에 맡겨 놓는다면 마음도 편안할 것을
> 속에서 불화가 치민다고 악을 쓰고 부아를 자기가 돋구니까
> 살얼음판을 딛고 가다가 거기다 모닥불을 놓는 셈이죠, 빨리 빠지게.

자식에게 좋은 부모이고 싶은데

질문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엇나가기만 합니다. 자식들에게 의지가 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제가 애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사실 여러분 가정에 고통이 많을 줄 압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뛰쳐나간다든가, 속을 썩인다든가 공부를 못한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에이, 요놈 자식아,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해야지, 너는 쪽박을 차려고 그러느냐. 뭐를 해서 벌어먹으려고 하느냐." 하고 욕을 해 대고 얼굴을 찌푸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부부지간도 그렇죠. 네 탓 내 탓 하면서 그냥 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말한다면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갈 뿐만 아니라 그게 해결이 나질 않아요. 화목할 수가 없게 되죠. 나중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보기 싫어지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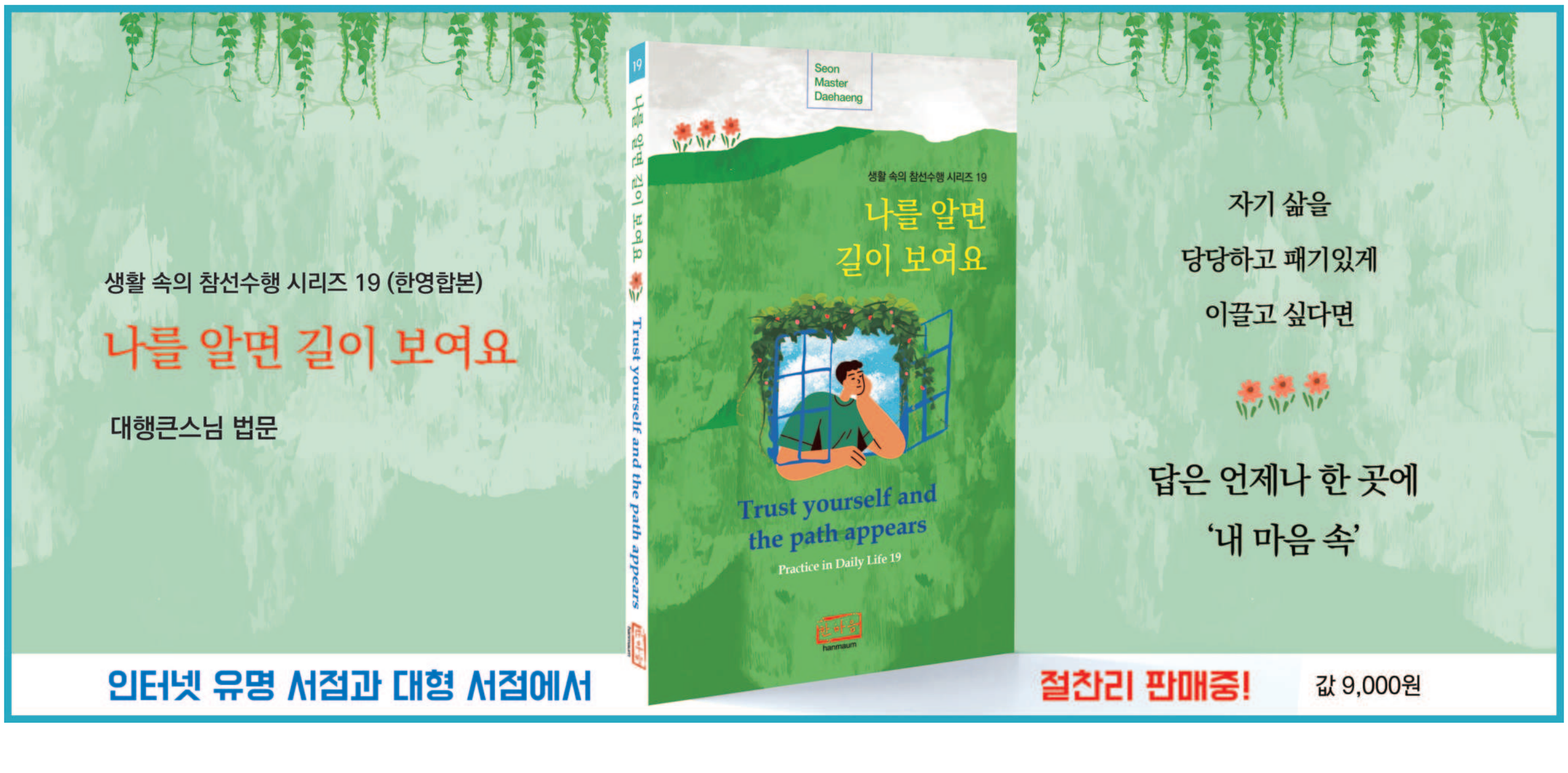
자식도 그렇게 되는 게 왜 그렇게 되느냐. 자식이라는 거 부모라는 거, 이 전기로 치면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데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가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마음과 육체가 더불어 같이 쉴 사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기 육신과 마음이 말입니다,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까.

그럼 애들과 어른만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일을 하면서 어떠한 그 문제들이 많죠? 윗사람 섬기고 아랫사람 이끌어 가기가 힘들어서 앨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시대에는 아마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공부가 그런 데도 쓰이는 거죠. 그런 데뿐만 아니죠.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다 쓰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좀 발전을 해라, 실천하고 체험을 해 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주인공에다가 스위치를 누른다면, 즉 입력을 한다면 자식의 마음에까지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자식에게까지도, 가설이 돼 있으니까.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마음에서 고장 난 거지 껍데기인 육체가 그냥 허수아비 모양으로 뛰어 달아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니까 차츰차츰 나가는 일이 없어지면서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엄마 속을 썩였지?"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어느 그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지금 모두 깡패가 생겼다고 야단법석들을 하고 뭐,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이러니 학교 못 보내겠다고 이 야단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관하는 것만 가르쳐 줬더라면 모든 거를 대체를 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인생살이가 살얼음판을 딛고 가는 형국인데 이 모든 거를 거기다가 입력하듯이 맡겨 놓는다면 마음도 편안할 것을, 속에서 불화가 치민다고 내던지고 아이, 악을 쓰고 부아를 자기가 돋구니까, 살얼음판을 딛고 가다가 거기다가 모닥불을 놓는 셈이거든요, 빨리 빠지게. 그리고 또 불화가 나서 팽개치고 내던지고 그러다 보면, 이건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냥 한 대 쥐어박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냥 죽이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뭐냐 하면 살얼음이 그냥 그 물건에 깨져요. 깨져서 그냥 물에 텀벙 빠지게 되죠. 그러면 날 살리라고 허덕이면서 어떻게든 비두발괄을 해서 나오게 되면 그 한번 빠졌던 그 문제들이 얼마나 진퇴양난인지 모르죠. 그래 가지고 자기 몸 병들죠, 재산 없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그렇답니다.

흔히들 육신은 배로 비유를 하고 여러분 육신 속에 있는 생명체들은 중생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 배에 타고 가는 중생들로. 그리고 그 주처의 중심은 바로 선장으로 비유하고요, 주인공은. 그런데 그 중생들이 만약에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친다면 그 배는 뒤집히고 만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선장한테 모든 거를 그저 맡기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는 데까지 가면서도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㉑ 의식이란 무엇인가 2

‘내가 있다’는 착각의 이유

생각이 확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걸으면서 바뀌는 주변 풍경과 기온, 바람의 세기, 공기의 느낌, 소리와 냄새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의 변화에 따라 마음도 계속해서 변화하며 이어진다. 느낌[수온受蘊]이 일어나며 ‘좋다 또는 싫다’라는 반응이 생기고, 이는 기억[상온想蘊] 속 연계 데이터를 건드려 의식의 표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이와 동시에 심장 부위에 울체되는 어두운 에너지가 확 몰려왔다 사라진다. 단순한 풍경에서 받은 느낌과 기억에 ‘갈애(또는 집착)’가 따라붙으면서 ‘감정을 동반한 반응 또는 생각[행온行蘊]’으로 이어져, 어느덧 번뇌 속을 잠시 헤매는 나를 발견한다.

‘생멸의 연속’이 초래하는 ‘있다’라는 착각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오온(五蘊)의 전개가 파도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이다. 바통 터치를 하듯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하나가 사라지면 또 하나가 생겨난다. 대상이 바뀌는 것에 따라 마음도 바뀐다. 예를 들면 약 5분 거리를 걷는 구간 사이에도 수십 건의 느낌과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순간적으로 그때그때(의 조건에 따라) 만들어지고, 또 순간적으로 그때그때(의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아! 마음은 멈춘 적이 없구나! 참으로 고단하구나!’

무상하게 ‘변화하고 있는 선상’이라는 진리이다. 그런데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나’ 또는 ‘내 것’이라는 ‘동일시(同一視)’ 또는 ‘소유화(所有化)’는 어떻게 일어난 걸까? 그저 ‘조건들의 부단한 만남과 그것의 생멸(生滅: 일어나고 사라짐)’일 뿐인데, 거기에 ‘있다’라는 착각(무명)이 생기면서 ‘나’라는 주체가 생겨난다.

주체(나)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객체(너, 그들, 세상 등)가 생겨난다. 특히 갈애(또는 취착取着)가 따라붙을 때 조심해야 한다. 갈애 또는 집착의 에너지는 대상을 분별 또는 파악하는 즉시 확 일어나서 대상에 끈끈이처럼 들러붙는다.



‘생멸의 연속’이 만드는 ‘있다’라는 착각. ©강소연

‘있다’라는 착각은 왜 일어나는 걸까?

그렇다면 ‘있다’란 착각은 왜 일어나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定: 사마타)+혜(慧: 위빠사나)’의 수행력을 키워 나가다 보면, 앗!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해체’되기 시작한다. 갑자기 확대경을 (대상에) 갖다 댄 것처럼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보이고, 또 대상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현상이 슬로 모션으로 전개된다. 그러니 낱낱이 볼 수 있다. 관찰이 예리할수록 대상은 더욱더 각자의 요소들로 쪼개지고, 이들의 합쳐지는 과정이 보이면서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반야(지혜의 빛)가 발사돼 그 실체를 비추는 순간, 대상은 박살이 나고 ‘무상·고·무아’이다. 그렇다면 여태껏 관찰력이 계발이 안 돼서, 또는 관찰력이 둔해서 ‘있는 줄’만 알고 매번 속았다는 것이다.

조건들의 이합집산 또는 조건들의 생멸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킨다. 다음 것을 밀어주면서 생겨나게 하고 사라지기에, 마치 계속해서(또는 항구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파도처럼. 그러면 여기에서 ‘있다’라는 착각(무명)이 계속 따라붙게 된다.

신기루의 비밀, 너무나 빠른 생멸의 연속!

쥐불놀이에 비유해서 예를 들어 보자. 짚에 불을 피워 구멍이 난 깡통에 넣고 돌리면 빛의 원이 형성된다. 멀리서 보면 마치 빛의 원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번 다른 불꽃이 생겨나며 이어지고 있다. 즉 불꽃이 그때그때 생겨날 때의 조건은 매 찰나 변하고 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연소 또는 불연소 때의 불꽃의 색깔과 크기는 참으로 변화무쌍하다. 하지만 불꽃의 생멸이 가열차게 ‘이어지는’ 현상을 통해 우리는 빛의 원이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강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만물유전(萬物流轉)이라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는 진리를 밝힌 바 있다. 멀리서 보면 ‘항상 있는 강물’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방금 흘렀던 물은 지금 흐르는 물과 다르다.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보다 석가모니 붓다는 한 번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까 담갔던 발과 지금 담갔던 발은 같은 발이 아니다”라고.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진리는 주객(主客) 없이 적용된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㉑ 공항 영양제

피로·신체 기능 회복에 도움돼

캐리어를 끌고 한 손님이 약국으로 들어왔다. 이런 차림의 고객은 대체로 여행용 상비약 구매를 위해 약국을 찾는 경우가 많아, 필자는 상비약 표를 주섬주섬 챙겼다.

“공항 영양제 주세요.”
“네? 공황 영양제요?”
“아뇨, 제가 비행기를 탈 일이 있거든요.”
“아, 비행기를 탈 때 공황장애가 생기시나요?”
“공항 영양제 모르세요? 공! 항! 영! 양! 제!”

정말 몰랐다. ‘공항 영양제’라는 것이 SNS를 타고 널리 퍼질 줄은. 유행에 뒤떨어진 40대가 되기는 싫어 재빨리 인터넷 검색 포털에 접속했다.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공항 영양제에 관련된 정보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공항 영양제라는 것은 아르기닌이었다.

공항 영양제라고 검색하면 대부분 스페인에서 수입된 주황색 플라스틱 제품이 나온다. 이 제품은 ‘포텐시에이터’란 일반의약품으로 주성분이 ‘L-아스파르트산 L-아르기닌’이며 함량은 5000mg인 제품으로, 정신적·신체적 기능 무력 증상에 대한 보조요법으로 사용된다. 피곤함이나 체력 저하 같은 증상을 완화하고 지친 몸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알려져 있고, 동일 성분 제품이 국내 제약회사에서 여러 종류 출시돼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제품이 유한양행의 ‘라라올라’이다. 주성분이 L-아스파르트산 L-아르기닌으로 앞글자 ‘LALA’를 따서 이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라라올라’, ‘라라포텐’, ‘라라파워’ 등 비슷한 이름으로 출시돼 있다.

이 제품이 공항 영양제로 유명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장시간 비행기를 타면 좁은 자리에 계속 앉게 되는데, 이처럼 움직임이 불편한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정체돼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공항 영양제의 주성분인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NO)를 생성하고 이 물질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도와 주며 산소와 영양소, 포도당의 이동을 증가시킨다. 즉, 아르기닌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혈관을 확장해 다리에 정체된 혈액을 잘 순환시켜 주고 산소와 영양분의 이동을 촉진하기에 오랜 시간 비행에서 나타나는 다리가 붓고 저리고 몸이 찌뿌둥한 불편함이 나아지는 것이다.

또 아르기닌은 요소회로(Urea Cycle)란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거리 비행 중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으로 몸의 부담이 커져 암모니아 같은 피로물질이 쌓일 수 있는데, 아르기닌은 이를 해독하는 과정을 촉진하므로 피로 유발 물질의 제거해 신체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

약국에 문의하면 일반의약품인 L-아스파르트산 L-아르기닌 성분 약과 건강기능식품인 L-아르기닌이 포함된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주성분 ‘L-아스파르트산 L-아르기닌’
과복용 시 구역 · 구토 등 위장 부작용
함량 · 맛 비교 취향 맞는 제품 골라야

두 성분 모두 결국 L-아르기닌의 공급이 핵심임은 동일하나, 일반의약품 원료인 L-아스파르트산 L-아르기닌은 구성 성분 중 아스파르트산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산에 관여하는 TCA 회로에 들어가는 성분이라 단순 L-아르기닌에 비해 신체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

아스파르트산이 있어 빠르게 에너지를 전환해 지친 몸에 힘을 더 넣어 준다는 것이 일반의약품의 장점인데, 대규모 임상 실험 결과 일반의약품의 원료인 L-아스파르트산 L-아르기닌이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L-아르기닌에 비해 더 좋은 효과를 가진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공항 영양제로서는 결국 L-아르기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여러 아르기닌 제품을 섭취해 보고 그 함량과 맛을 비교해 취향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아르기닌은 과복용 시 구역·구토 등 위장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저혈압 환자나 심혈관 질환자는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아르기닌이 체내에 많으면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헤르페스 등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사람은 아르기닌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정설은 아니지만 아르기닌 복용 후 헤르페스가 재발했다는 환자 사례가 다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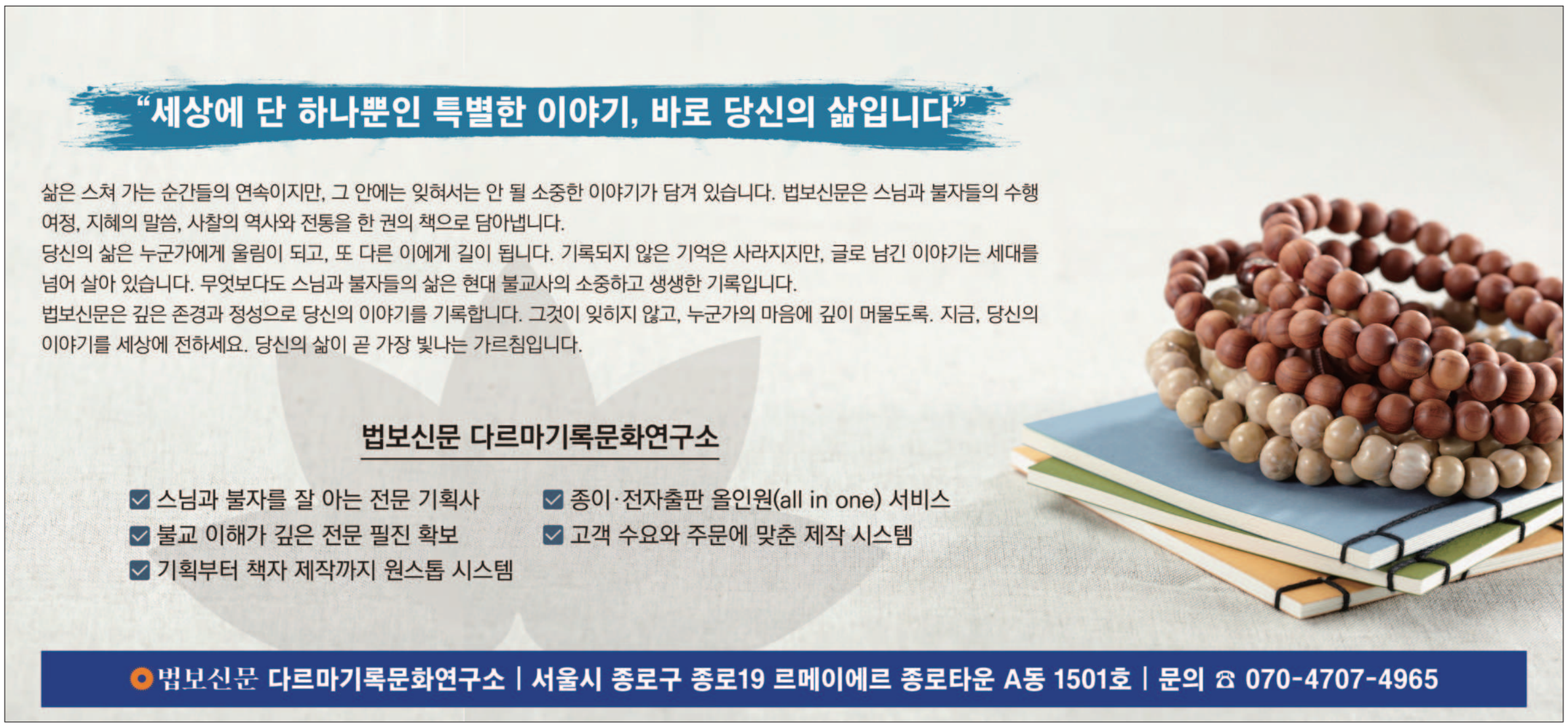
공항 영양제를 장시간 비행에 필요한 영양제라고 정의한다면 그 정답이 아르기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시간 비행 시 불편함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선택하는 것이 나만의 공항 영양제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장시간 앉아 다리가 붓고 아픈 것이 가장 불편했다면 아르기닌이 도움이 될 것이며, 습도가 낮고 건조해 피부가 푸석하고 트러블이 생긴다면 마스크 팩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시차로 고생한다면 푹 잘 수 있도록 수면유도제를 준비하거나 멜라토닌, 타트체리 같은 숙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준비하는 것이 좋고, 환경 변화로 면역이 떨어지고 피로함이 심한 사람이라면 면역증강제나 비타민B군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공항 영양제라고 해서 반드시 공항 근처 약국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 동네 약국에도 구비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항 내의 약국은 가성비보다는 ‘가심비(가격이 높더라도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적 만족이나 감정적 가치가 큰 경우)’가 좋을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여기가 IC 진입 전 마지막 주유소입니다”와 같은 멘트를 지겹도록 많이 봐 오지 않았는가!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전법 일기

마음의 문 열리는 순간
부처님 자비는 살아난다

전법의 길은 때때로 뜻밖의 곳에서 열린다. 도량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며 법회도 아닌 곳. 그곳은 차갑고 무거운 철문이 닫혀 있는 교정시설이었다.

처음 초청을 받았을 때 나는 잠시 마음을 고르게 했다. '과연 소리 명상이 이곳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 그러나 전법이란 가는 길을 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는 조용히 그곳의 문을 통과했다.

첫날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말보다도 시선이었다. 처음 인사를 어떻게 건네야 할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잠시 머뭇거리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먼저 닉네임을 정하고 소통하기 시작했다. 범죄자나 수용자가 아닌, 하나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마음의 벽을 여는 첫걸음이었다.

붓다볼을 손에 올리며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부처님, 이 울림이 그들의 가슴에 빛으로 들어가 참회의 길을 열어 주소서."

볼을 울리자 차갑던 공간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높은 벽과 차가운 바닥도 울림을 머금었다. 그 진동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드러운 파동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명상이 몇 차례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표정과 숨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누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명상을 계속하다 보니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기다렸다면…. 후회가 됩니다. 명상을 하고 나니 앞으로의 삶을 생각할 힘이 생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잠시 멈춰 숨을 삼켰다. 죄의 무게가 아니라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다.

한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젊은 수용자도 명상이 깊어질수록 태도가 바뀌었다. 이름을 부르면 눈을 피하던 사람이 어느 날에는 눈을 지그시 감고 붓다볼의 울림에 맞춰 천천히 호흡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구속된 것은 그들의 몸이었지만 붓다볼의 울림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자유가 피어나고 있었다.

전법은 거창한 설법이 아니다. 때로는 말보다 한 번의 울림, 한 번의 숨, 멈추어 앉아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깊은 깨달음을 만든다.

닫힌 문 바깥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가을이면 하늘이 낮게 내려앉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진다. 문 안과 바깥의 하늘은 다르지 않았다. 달라야 했던 것은 마음이었다.

붓다볼의 소리는 멀리 가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 닿는다. 그 울림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다시 길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그곳이 곧 도량(道場)이다.

전법의 발걸음은 오늘도 이어진다. 문이 열려 있든 닫혀 있든 소리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 마음이 열리는 순간 부처님의 자비는 다시 살아난다.



김경숙 (사)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㉑ 공존이라는 감각 ①

보이지 않는 신뢰가 사회 근간

신문을 읽고 아침 토론을 하는 시간에 불현듯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왜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률 1위인가요?"

자료를 찾아보니 OECD 국가 중 2003년부터 20년 넘게 압도적으로 자살률 1위라고 한다. 작년 한 해 1만4872명이 자살했다.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니 OECD 평균 10.7명보다 거의 3배에 가깝다. 더 슬픈 것은 아이들도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아무도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루 평균 약 40명이 36분 간격으로 세상을 등지는 나라, 매 교시 수업을 하고 나올 때마다 한 명씩 세상을 등진다. 최근 10년간은 경북 김천시 인구와 맞먹는 약 13만 5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군인 사망자 수와 같다.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인데, 그런 감각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초현실처럼 기괴하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한 나라가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출산율이 2.1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20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에 불과하다. 남녀 각각 50명이 결혼해 다 아이를 낳았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00명이 2세대에 38명, 3세대 14명, 4세대 5명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백 년 안에 눈앞에 벌어질 일들이다.

20년 이상 자살률 OECD 국가 1위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 불과해

신뢰 없는 사회에 인재·혁신 없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죠. 다들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애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자기가 바쁘다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또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번에는 야구장입니다. 앞사람들 때문에 뒷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괜찮은데, 키가 작은 사람은 통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나 상자를 가져다 줬더니, 어떤 사람은 그게 불공정하다고 합니다. 특별 서비스를 받았으니 따로 요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20대에 전문의가 되어 몇 억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칩시다. 남들 게임하고 놀 때 쉬는 시간까지 아껴 쓰며 공부해 얻은 결과니 다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억대 연봉자는 세금이 높아서, 가령 약 40%의 소득세를 낸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구요?

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있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없을 때는 생사를 다투는 일이 됩니다.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을까요? 의자가 없어도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이 의자를 받치지 않으면 관람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자를 내어 주는 일이 역차별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바른 감각일까요?

어떤 사람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매달 엄청난 병원비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가족은 억울함을 떠나 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회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이런 사회에 발을 딛고 살고 싶을까요? 이런 곳에 과연 인재들이 모여들어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살률과 출산율은 이 세상의 공기와 같은 신뢰 지표입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또 좌절된 '비구니 호계위원'

11월 5일 열린 조계종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 점심 공양 후 본회의가 속개됐지만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오랜 논의 끝에 상정된 '비구니 호계위원' 종헌 개정안이 단 1표 차로 부결되자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떠난 것이다.

이날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그동안 함께 논의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이번 결과가 큰 실망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던 비구니 스님들이 느꼈을 실망과 안타까움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발언이다.

이 논의는 2014년부터 이어져 왔다. 그해 6월 제198회 임시회에서 비구니 스님의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한 달 뒤 원로회의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 좌초됐다. 이어 8월 임시회에서 다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으나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다.

한동안 멈췄던 논의는 올해 다시 본격화됐다. 9월 열린 임시회에서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안건이 이월되자,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전국을 돌며 원로의원 스님들과 종회의원 스님들을 찾아다녔다. 법 개정의 필요성과 오해를 일일이 설명하며 진정한 승가공동체 실현을 요청했다.

이번 종헌 개정안은 '비구니 사건에 한해 비구니 위원이 초심호계에 참여한다'는 제한적 조항이다. 그간 호계원에서는 비구니 스님과 관련 사건을 비구 위원들이 심리하면서, 비구니의 수행 환경이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비구니 사건에 한해 문호를 열자는 비구니 스님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냉혹했다. 59인의 종회의원 스님이 발의했음에도 찬성은 53표에 그쳤다. 종단 변화에 대한 저항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다시 종회의 높은 벽을 실감했지만 끝은 아니다. 비구니 승가의 참종권 확대를 위해 오랜 세월 노력해 온 비구니 스님들의 인내와 원력이 꺾이지 않길 바란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불자의 최소 조건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예전에 어느 불교 전법사가 주창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다.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도 불법을 바로 아는 이는 드물고, 불도를 바르게 실천하는 이는 더욱 드물다'라는 것이었다. 평범한 글이지만 비교적 강한 전달력이 있다고 생각됐다.

오늘날 종종 발표되는 통계를 봐도 다른 어떤 종교보다 불교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으니 첫째 구호는 의미 있는 진단이라 할 수 있다. '드물다'라는 말도 그렇지만 불법이라는 말에 어떻든 복잡한 교리체계 등을 떠올리게 돼 두 번째 표어도 수긍할 수 있다. 세 번째 구호, 불도를 바르게 실천하는 이는 더욱 드물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스스로 불교를 잘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용한 캐치프레이즈라면 불교를 바르게 실천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아무리 불교가 좋아도 불교를 바르게 실천하는 이가 없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불교는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다. 과연 불교가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불교를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옳은 진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앞의 캐치프레이즈가 왜 의미 있게 들릴까?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을 것이다. 불교니, 불법이니, 불도니 하는 용어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대개 사람들은 용어의 함정, 언어의 함정에 쉽게 빠진다. 말은 의미의 전달을 위해 유사하게 모습을 바꾸는 속성이 있다.

불교·불법·불도는 다른 표현에 불과
다르지 않음 알면 실천 저절로 행해져
삼귀의·보시 실천, 청정으로 나아가야

불교나 불법, 불도 등의 표현에는 그 차이가 없지 않으나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불교를 붓다의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것은 초보적 이해이다. 불교에서 붓다의 가르침은 세상 대중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 그 가르침의 다양한 법(교설이나 존재)이나 법칙을 칭하기 위해 불법이라 하며, 세상 대중에게 가르쳐 그 교설을 따라가니 불도라 칭해지는 것이다.

결국 불교, 불법, 불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것을 좋아하고 알며 실천하는 데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실천은 저절로 행해지게 돼 있다. 불교를 좋아하고 알고 하는 행하는 순간 불자[bauddha]가 되며, 그것은 수계라는 의식으로 확정된다.

그래서 불교를 행하는 것은, 즉 불교·불법·불도를 실천하는 방법은 고통의 현재에서 벗어나 피난처로 돌아가서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붓당 사라남 가차미/ 담망 사라남 가차미/ 상강 사라남 가차미'라는 삼귀의의 서원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돌아가 의지할 곳은 붓다·담마·승가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붓다를 칭명하고 받들겠다/ 붓다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겠다/ 청정한 승가를 공경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해석해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이 붓다의 제자, 바웃다의 최소 조건이다. 여기에 보시의 베풂으로 인색함을 덜고 청정으로 나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도파민 중독사회와 선명상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파민 중독'의 시대로 표현되고 있다.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로 뇌세포에 쾌락, 즐거움 등의 신호를 전달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될 때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 소위 '문명사회'라고 불리는 마당에 사는 현대인들은 각종 고통과 불편함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무기력과 불안을 낳았고 결국 도파민 중독의 사슬에 묶여 허덕이고 있다.

주변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도파민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SNS와 스마트폰에 매몰된 디지털 중독, 상품 구매에 빠진 사람, 특정 연예인에 매달린 열광적 팬, 운동 중독,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편향된 한 생각에 집착한 '구분심의 중독' 등이다. 이러한 도파민의 중독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나오고 있다. 신경 심리학, 임상 심리학 등 정신의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각종 치유 방법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명상이다. 명상은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다. 그러나 오늘날 명상은 서구에서 계발되고 확산하고 있다. 프로이트 심리이론이 가진 한계성과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명상을 심리 임상 치료에 활발히 적용하고 있고 '명상의 과학화'를 주창하고 있다. 이를 어쩌라.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지만 뭔가 서운한 생각도 들곤 한다. 특허를 도용당한 것 같이.

행복, 쾌락·고통 균형 항상성서
도파민 과잉, 중도 항상성 파괴
치유 위한 선명상 과학화 중요

근래 한국불교계에 '선명상'이란 키워드가 등장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참으로 반갑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조계종 전통 수행인 간화선이란 용어는 수행자 중심의 산중 불교의 느낌을 주고 깨달음 위주의 명상으로 인식됐다. 이제 선명상은 하산(下山)하여 보통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명상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리라.

전통적인 한국불교는 깨달음이 형님이고 자비는 동생인 가치 체계를 유지한 느낌이다. 그러나 선명상은 깨달음과 자비가 일란성 쌍둥이로 동행하고 있다. 일상적인 삶의 광장 속에서 깨달음을 지향하면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리라.

뇌과학은 쾌락과 고통이 뇌의 같은 부위에서 나온다고 한다. 쾌락과 고통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할 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고 한다. 쾌락과 고통은 모두 삶의 기본적인 질료이다.

여기서 중도(中道)를 생각하게 된다. 도파민의 과잉은 중도의 항상성이 파괴된 것이다. 도파민 중독 치유는 의지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실천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이는 선명상 과학화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새로운 연기적 틀에서 등장한 선명상의 역할과 과제는 광범위하고 다양할 것이다. 선명상이 도파민의 파고 속에서 멋지게 춤을 추는 대자유인의 기개를 심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선명상은 전법의 키워드이기도 하다. 선명상이 지혜와 자비의 정원을 가꾸는 실천윤리로 뿌리내리기를 서원한다.

社 說

불교문화 외교의 새 지평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 불교의 문화적 저력을 세계에 선명히 각인시킨 뜻깊은 자리였다.

불교계는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법회를 시작으로 불국사에서 열린 공식 외교행사와 사찰음식 만찬, 간화선 체험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며 한국 불교문화를 '평화의 언어'로 세계에 전했다. 경제와 안보 중심의 국제회의가 종교와 문화를 통해 '마음의 외교'로 확장된 것이다.

특히 불국사에서 열린 배우자 행사는 불교문화 외교의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선명상 수행으로 세계 평화의 근원을 마음에서 찾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APEC CEO 서밋 특별만찬에서 선보인 사찰음식도 한국불교의 철학적 깊이를 세계와 나누는 훌륭한 문화 사절이 됐다. 또 동국대에서 열린 간화선 체험 프로그램은 한국불교의 수행법으로 '마음의 평화'에서 '세계의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불교는 '문화외교의 조연'이 아니라 '평화외교의 주체'로 우뚝 섰다. 불교계는 이러한 성과를 일회성 행사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불교문화의 세계화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불교정신을 전하는 일이다. 사찰음식·선명상·간화선처럼 한국불교의 생활문화와 수행문화를 체계적으로 세계화하고, 국제협력 속에서 '평화와 상생의 불교외교' 모델을 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

범어사 대승적 결단 빛났다

한국의 24번째 국립공원이자 첫 도심형 국립공원의 주인공은 부산 금정산이다.

금정산은 부산의 주산(主山)으로서 자연과 역사,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공간이다. 그중에서도 금정총림 범어사와 금정산성은 금정산의 정체성이자 핵심자원으로 손꼽힌다.

부산시는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오랜 공을 들여왔다.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민간 사유지와 사찰 토지 문제, 수행 환경 보전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이에 범어사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지난해 부산시·금정구 등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식적으로 국립공원 지정에 동의했다. 이 협약을 통해 범어사는 '지정 이후 운영 국면까지 함께 책임지는 협력 당사자'로 참여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 같은 범어사의 협력은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분기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금정산을 찾는 탐방객 수가 연간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는 6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 보전 가치에 중심을 둔 자연유산임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에 결정적 기여를 범어사가 한 것이다. 이는 사찰과 지역의 상생이라는 시대 과제에 대한 모범 사례이기도 하다. 범어사를 품은 금정산 국립공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도심 국립공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1월 12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1월 1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1월 1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11월 1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장인의 손길, 복을 담는 그릇

100% 핸드메이드 연꽃 복전함



대형 (66cm×56cm×56cm) ⇒ **2,600,000원**
중형 (56cm×46cm×46cm) ⇒ **2,300,000원**
소형 (45cm 출시예정) ⇒ **1,900,000원**

청정한 연꽃의 기운과 복을 모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박지문(博地門)' 글씨 양각 새김



돈 꺼내는 도구

- **오동나무 원목** – 고급스러운 질감, 내구성 뛰어남
- **우레탄 금분 칠** – 오래도록 변색 없이 유지
- **복전함 & 박지문 양각** – 복을 모으고 지키는 의미의 상징
- **비밀 출금 구조** – 외부에서 절대 열 수 없음, 구입자에게만 안내
- **전용 출금 도구 제공** –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 제공



복 전 함
설치사례

부산 관음사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